



지역개발의 자율성 증진과 지역간 협력강화

제3차 전라북도 종합발전계획

제1장 지식기반 행정체제의 기반 구축

제2장 지역의 국제교류 및 지역협력 촉진

제3장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자원조달 방안

제1장 지식기반행정체제의 기반구축

1. 현황과 문제점

1) 지방 관리·행정조직 현황

■ 중앙정부 위주의 지역단위 관리체계

· 지역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하고도 복합적인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중앙 및 지방정부의 일선조직들이 있다.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속해 있는 600여개 조직은 중앙정부기관 내지는 중앙정부에 의하여 통제·지원되는 기관으로 볼 수 있어 지방관리에 있어 중앙정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표 XII-1> 지방행정관서 분포현황

(단위: 개소, %)

구 분	계	지방행정관서						경찰·소방관서				법원·검찰관서				기타 중앙 관련 기관	신문 방송· 전화국	협동 조합
		도청	시군청	읍동청	직속기관	사업소	경찰청	지파출소	소방서	소방소	의용소대	법원(지원)	등기소	검찰(지청)	공도소			
계	1609(100.0)	1	16	248	30	56	16	250	8	40	202	9	10	4	3	384	34	298
전주시	265(16.5)	1	4	40	3	13	3	32	3	7	5	1	-	1	2	84	11	55
군산시	171(10.6)	-	1	29	2	4	1	31	1	7	16	1	-	1	1	44	4	28
익산시	192(11.9)	-	1	27	3	11	1	27	1	7	19	1	2	-	-	48	4	40
정읍시	140(8.7)	-	1	23	2	5	1	23	1	3	15	1	-	1	-	39	1	24
남원시	138(8.6)	-	1	23	2	6	1	22	1	2	21	1	-	1	-	31	3	23
김제시	132(8.2)	-	1	19	2	5	1	20	1	3	22	1	1	-	-	30	1	25
완주군	62(3.9)	-	-	13	2	4	1	13	-	2	17	-	-	-	-	-	-	10
진안군	78(4.8)	-	1	11	2	1	1	11	-	1	13	1	1	-	-	21	1	13
무주군	48(3.0)	-	1	6	2	-	1	8	-	2	9	-	1	-	-	10	1	7
장수군	56(3.5)	-	1	7	2	1	1	7	-	1	8	1	1	-	-	18	1	7
임실군	79(4.9)	-	1	12	2	1	1	13	-	1	16	-	1	-	-	14	1	16
순창군	67(4.2)	-	1	11	2	1	1	10	-	1	12	-	1	-	-	13	1	13
고창군	97(6.0)	-	1	14	2	4	1	15	-	2	17	-	1	-	-	18	2	20
부안군	84(5.2)	-	1	13	2	-	1	18	-	1	12	1	1	-	-	14	3	17

자료: 전라북도, 전북통계연보, 1999

제1장 지식기반행정체제의 기반구축

· 중앙정부 조직으로는 법원, 검찰 및 경찰조직, 세무, 정보·통신 및 산업지원 관련 조직 등이 있다. 이는 향후 대민 지원서비스, 지역산업 육성 등에 있어 지역단위의 중앙 및 지방정부 조직간의 협력과 제휴가 필수적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들 조직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906개소(56.3%)는 시부 지역에, 703개소(43.7%)는 군부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지역적 분포 특성으로는 광역적·중추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주요 관공서는 전주, 군산, 익산시에, 기타 군부에는 우체국, 파출소 등 기초적인 대민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관서들이 주로 분포되어 있다.

■ 계층적 지방행정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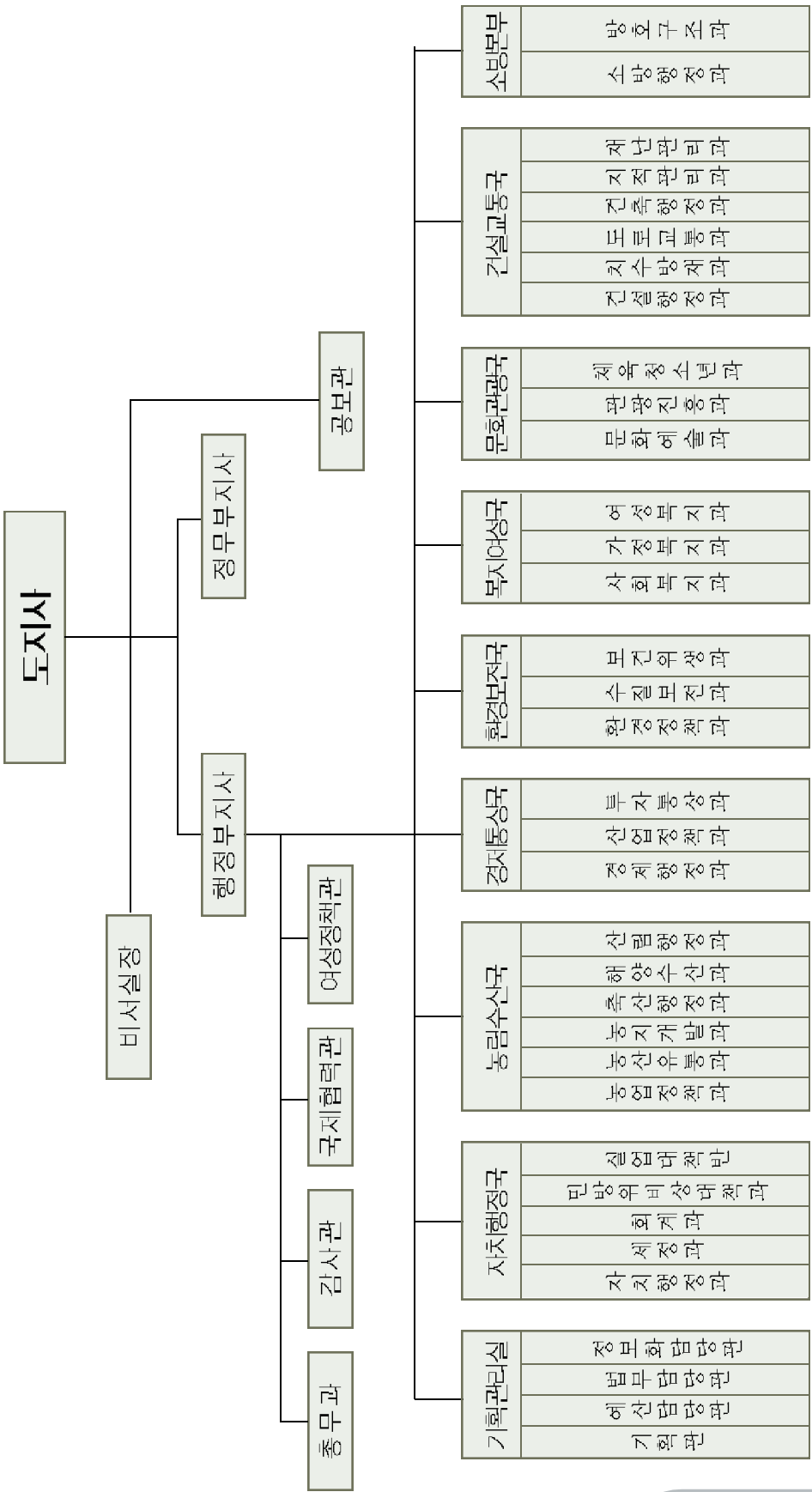
· 본 지역내 도단위의 행정조직은 본청, 의회 및 교육원,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사업소 등 산하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 본청은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 기초자치단체간의 업무조정, 지원 및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조정 및 협의 기능을 수행하며 부문별 광역행정을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광역자치단체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본청에는 지사 및 부지사 산하의 1실 7국 1본부 8담당관 32개과와 142개의 담당부서를 지니고 있다. 지방행정 조직은 기본적으로 계층적 구조를 지니고 있어 상하간의 통제와 커뮤니케이션에는 원활하나 수평적 차원에서 부서간의 자율적인 협력과 조정에는 취약한 조직상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표 XII - 2> 현행 전라북도 행정조직 구성

(단위: 개소)

구 분	실	원	국	처	본부	부	담당관	과	담당	계
계	1	3	9	1	1	1	12	52	245	325
본 청	1		7		1		8	32	142	191
교 육 원		1			7개소방광서 37개 파출소			2	4	7
기 술 원		1	2					8	37	48
보건환경		1				1		1	2	5
사 업 소	13개 사업소 5개지소						2	9	54	65
의 회				1			2		6	9

자료: 전라북도, 전북통계연보, 1999



$\langle \xi | X | I - P \rangle = 0$



제1장 지식기반행정체제의 기반구축

■ 지방행정 인력기반

· 본 지역내의 지방행정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인력은 1998년 현재 15,170명이며, 소속기관별로는 도 본청 949인(6.3%), 도의회 및 사업소 715인(4.7%), 시·군청 8,432인(55.6%), 읍·면·동 3,968인(26.2%), 소방서 1,106인(7.3%)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지역의 지방행정인력은 여타 도와 비교시, 양적 규모차원에서 행정수요의 충족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공무원1인당 인구수를 보면, 도본청 공무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도평균이 2,791명인데 비해 본 지역은 2,027명이며, 시·군 등 공무원 총수를 기준으로 할 때 도평균이 150명인데 비해 본 지역은 127명으로 도지역 평균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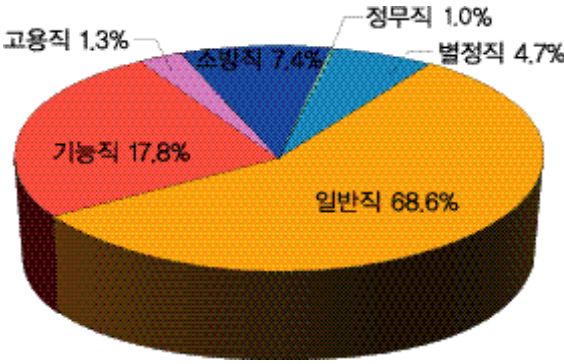
<표 XII - 3> 시·도별 공무원수 현황 비교

구 분	인구 (천인)	면적 (km ²)	계	공무원수				공무원1인당 인구수		공무원당 면적(km ²) (총공무원)
				시·도	시·군·구	읍·면·동	시·도의회 및 사업소	도본청	총공무원	
전 국	46,429.8	99,407.9	258,397	16,974	138,905	60,289	42,229	2,735	180	384.7
서 울	10,142.4	605.5	48,650	2,414	22,500	9,463	14,273	4,201	208	12.4
부 산	3,827.4	753.2	16,593	1,613	9,448	2,983	2,549	2,373	231	45.4
대 구	2,523.8	885.5	9,195	994	3,651	2,182	2,368	2,539	274	96.3
인 천	2,468.7	958.0	9,518	956	4,010	1,957	2,595	2,582	259	100.7
광 주	1,332.0	501.2	5,989	921	2,260	1,071	1,737	1,446	222	83.7
대 전	1,371.6	539.8	5,939	833	2,225	1,006	1,875	1,647	231	90.1
울 산	1,042.6	1,055.7	3,989	744	1,714	733	798	1,401	261	264.7
도 계	23,723.8	94,109	158,524	8,499	93,097	40,894	16,034	2,791	150	593.7
경 기	8,692.4	10,136.2	33,589	1,176	20,712	7,448	4,253	7,391	259	301.8
강 원	1,490.3	16,561.9	15,118	911	8,488	3,691	2,028	1,636	99	1,095.5
충 북	1,456.3	7,432.7	11,064	827	5,740	2,860	1,637	1,761	132	671.8
충 남	1,830.7	8,584.8	14,684	1,053	7,588	4,013	2,030	1,739	125	584.6
전 북	1,923.3	8,047.5	15,170	949	8,432	3,968	1,821	2,027	127	530.5
전 남	2,060.6	11,963.8	19,804	1,012	10,613	6,022	2,157	2,036	104	604.1
경 북	2,747.1	19,022.5	27,464	1,005	19,041	6,552	866	2,733	100	692.6
경 남	2,993.8	10,513.3	17,715	978	10,455	5,421	861	3,061	169	593.5
제 주	526.8	1,845.9	3,916	588	2,028	919	381	896	135	471.4

자료: 전라북도, 전북통계연보, 1999.

■ 지방행정인력 직종별 분포

· 직능별 현황을 보면, 일반직이 68.6%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특수분야의 기능직 인력은 17.8% 정도이다. 최근 지역간 국제교류 증대와 외자유치 증대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12명 정도에 불과하는 등 향후 행정수요의 다원화와 전문화에 따라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전문직 공무원의 확충, 새로운 기능과 지식행정 수행을 위한 재교육·훈련기능 강화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도 XII - 2> 지방행정인력의 직종별 분포

<표 XII - 4> 직종별 지방행정 공무원수

(단위: 인 %)

구 분	계						
		정무직	별정직	일반직	기능직	고용직	소방직
전 북 계	15,170 (100.0)	15 (1.0)	708 (4.7)	10,412 (68.6)	2,707 (17.8)	199 (1.3)	1,129 (7.4)
도 본 청	949(5) (100.0)	1 (0.1)	27 (2.9)	726(4) (76.5)	145 (15.3)	21 (2.2)	29(1) (3.1)
도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715(4) (100.0)	-	14 (2.0)	478(4) (66.9)	221 (30.9)	2 (0.3)	-
시·군청	8,432 (100.0)	14 (0.2)	375 (4.4)	5,939 (70.4)	1,986 (23.6)	118 (1.4)	-
읍·면·동	3,968 (100.0)	-	292 (7.4)	3,269 (82.4)	352 (8.9)	55 (1.4)	-
소방서	1,106 (100.0)	-	-	-	3 (0.3)	3 (0.3)	1,100 (99.4)

자료: 전라북도, 전북통계연보, 1999.



제1장 지식기반행정체제의 기반구축

제3차 전라북도 종합발전계획

2) 지방행정조직 · 인력의 문제점

■ 지역특성을 반영한 조직구성 및 운영미흡

· 지방행정 인력은 지역의 행정수요 수준에 따라 상이한 기능수행이 요구된다. 즉 도본청은 기획 및 지역발전체계 구축을 위한 시책추진이 중요한 반면, 시·군, 읍·면·동은 지역주민과 밀접한 대민서비스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의 확보가 중요하다. 그러나 지방행정 조직의 규모나 형태 등 기본적인 골격이 전국적인 차원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의 반영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특히 행정의 효율화를 위한 지방행정의 민간화, 책임경영체제구축, 지식기반화 등소프트웨어의개선이미흡한실정이다.

■ 지역주민 행정수요에의 대처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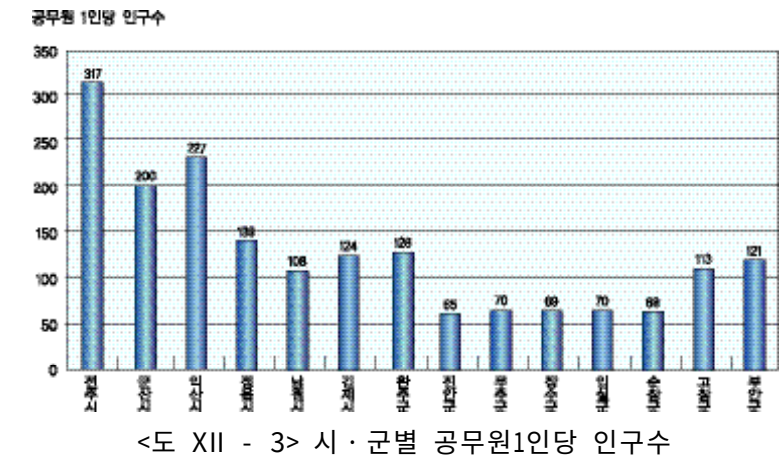
· 지방행정조직의 경직성은 새로운 행정수요에의 대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권한 결여로 지역적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행정서비스 만족도와 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 지방행정 조직개편 시에도 지역적으로 쇠퇴하는 기능에 대한 과감한 감축이나 새로운 분야에 대한 기능강화 등 새로운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보다는 중앙정부의 일률적인 기준에 따른 조직의 물리적 감축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지역발전 부진의 가장 큰 이유의 하나로 지방행정과 재정 등 관리능력의 부족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지방행정의개선이주요과제임을시사하고있다.

■ 지방행정인력의 전문성 미흡

· 지방행정수요의 전문화와 세분화에 적절히 대응하여 고객지향적인 지방행정으로 전환토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행정인력의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 본 지역내 공무원의 직능별 현황을 보면, 일반직이 68.6%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특수분야의 기능직 인력은 17.8%에 불과하여 행정수요의 다원화와 전문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행정의 전문성 제고및인력의재교육 · 훈련추진등이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 행정서비스의 시·군별 수혜격차

· 1998년 현재 지역내 대민서비스를 주로 담당하고 시·군 및 읍·면·동 공무원수는 총 12,400인이며, 시·군별 1인당 공무원수를 보면 전주시가 가장 높아 공무원 1인당 지역주민수는 317명인데 비해 진안, 장수, 순창군 등은 60인 이하로 나타났다. 즉 인구감소와 지역적 특성에 따라 신축성있는 조직 및 업무재설계와 공무원의 재훈련을 통한 고객지향적 서비스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표 XII- 5> 시·군별 행정인력 현황

(단위:명)

구 분	합계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고용직	공무원1인당 인구수
계	12,400	14	9,208	667	2,338	173	-
전주시	1,892	1	1,290	73	461	67	317
군산시	1,407	1	984	87	306	29	200
익산시	1,479	1	1,085	78	294	21	227
정읍시	1,088	1	839	74	163	11	139
남원시	984	1	736	55	189	3	108
김제시	983	1	751	63	167	1	124
완주군	673	1	518	36	108	10	128
진안군	535	1	424	22	85	3	65
무주군	437	1	331	21	83	1	70
장수군	441	1	336	18	81	5	69
임실군	581	1	449	35	88	8	70
순창군	544	1	417	32	88	6	68
고창군	698	1	558	36	103	-	113
부안군	658	1	490	37	122	8	121

주: 읍·면·동공무원은 포함(소방공무원 제외)
자료: 전라북도, 전북통계연감, 1999.



제1장 지식기반행정체제의 기반구축

2. 여건변화와 동향

■ 지방행정의 외부여건 변화

· 정치의 민주화와 지방자치제의 정착에 따라 지방행정에 대한 권한과 책임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지방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 욕구가 커지고 있어 행정수행에 있어 효율성 못지 않게 지역내 합의기반 조성, 주민참여 기회 확대 등 절차적 민주화와 투명성의 제고가 주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지방행정수요의 질적 변화

· 세계화·지방화로 지역중심의 발전체제가 구축됨에 따라 지방행정이 단순한 주민복지행정에서 벗어나 지역의 경제·산업 등 종합적인 발전과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고 있으며, 환경·문화·삶의 질·복지 등 다양한 가치와 행정수요에의 대응이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지방화의 전개로 그동안 중앙정부의 고유영역이었던 정부기능이 대폭 지방정부로 이양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따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기술과 지식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전문행정인력의 유치와 양성이 중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 지방관리·행정체제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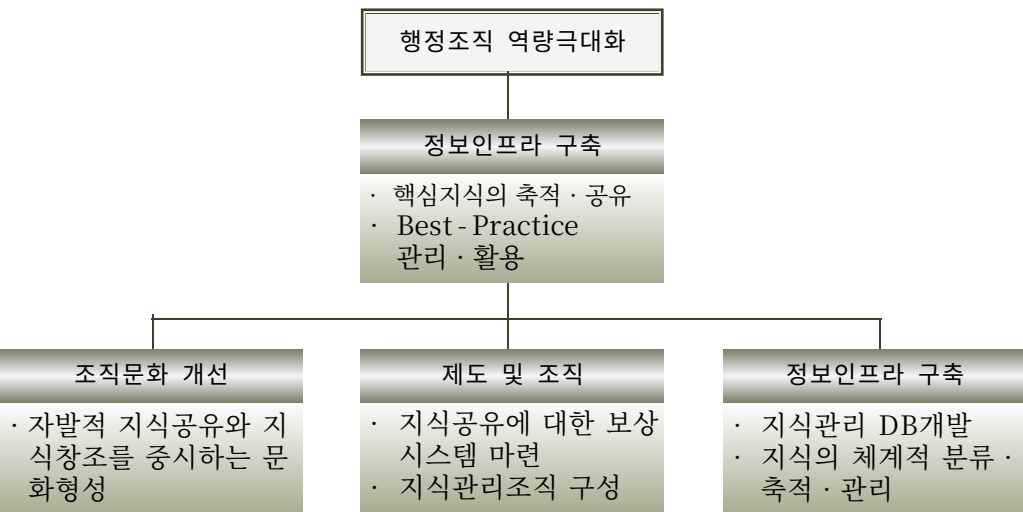
· 자율적인 지방행정체제 도입으로 지역간 경합과 경쟁심화가 예상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민영화, 책임경영 등 효율적인 지방경영·행정체제의 도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함께 개방된 체제하의 지역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지역간 협력·제휴 및 자원의 공동이용을 위한 광역행정체제의 필요성이 증대하며, 지역관리 및 행정에 있어 민간부문과의 동반자관계 형성, 그리고 주민 및 시민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이 지방행정 수행의 주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3. 지식기반 경영행정체제 구축의 기본방향

- 지방정부의 지식인프라 강화와 전자정부 실현
- 지역주민 및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체제구축
- 자율적인 지역개발 추진을 위한 책임·경영행정체제 구축

■ 지방정부의 지식인프라 강화와 전자정부 실현

· 온라인, 인터넷을 통한 행정처리절차의 간소화와 양식의 표준화를 통해 행정업무의 정보화를 실현하고, 전자결재, 전자우편 및 화상회의 활용도를 높여 전자정부를 구축한다. 조직진단 및 설계를 통해 정보기술의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업무수행체제를 구축하고, 공무원의 지식기반화 추진을 위하여 조직개편 및 인센티브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도 XII-4> 지식관리시스템 개념도

■ 주민만족 및 수요중심의 행정체제 구축

· 지방자치의 실시와 가치관의 다원화 등에 따라 지역주민의 행정수요가 증대됨에 따



제1장 지식기반행정체제의 기반구축

라 고객지향적인 행정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과 지역사회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열린행정체제 등을 통해 주민만족 및 수요자중심의 행정체제를 구축한다.

■ 행정서비스의 효율화 도모를 위한 책임·경영행정체제 구축

· 공공·민간의 파트너십 형성을 통해 열린 공무원제도를 실현하고, 행정서비스의 민간참여를 확대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예산절감효과를 창출한다. 개방적 임용체제 도입과 민간기업, 연구소, 외국자치단체와의 교환근무제를 실시하여 민관공동경영체제를 구축하고, 환경·복지분야를 중심으로 민간위탁 및 이양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기업과 지역주민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등 기업하기 좋고 지역주민이 활동하기 편한 행정체제로 전환한다. 행정서비스의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여 성과중심의 평가체제를 구축하고, 주민의 평가참여,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한 수요자중심의 행정체제를 구축한다. 기업가적 예산제도 도입, 투자심사분석제도 활성화, 성과주의 감사제도 도입 등으로 경직성 비용을 절감하고, 필수적인 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의 유연성을 강화하도록 한다.

4. 세부추진시책

■ 전자정부 실현을 위한 지식 및 정보인프라 구축

· 전자정부의 실현을 통해 투명한 지방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도내 전자결재, 전자문서 유통을 위한 행정인프라 구축 뿐만 아니라 대민서비스 제고 차원에서 민원처리인터넷 공개시스템, 제세공과금 인터넷납부시스템, 시·군간 업무정보망 등을 구축토록 한다. 그리고 행정운영상에 생산되는 모든 지식과 정보를 전 공무원이 공유토록 하는 지식관리시스템을 도입·확대하도록 한다.

■ 고객지향적인 참여행정체제로 조직개편

· 지역주민의 행정수요 변화에 신속성있게 대처하고 지역의 발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업무재설계 및 행정조직의 책임·경영개념을 도입한다. 그리고 조직진단 및 설계를 통해 정보기술의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업무수행체제를 구축하고, 쌍방향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재택행정서비스를 실시한다. 또한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정책예고제, 주민모니터링 등 다원적 정책결정방안을 도입하여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행정참여를 촉구한다. 그리고 공무원의 지식기반화를 위한 조직 및 인센티브제를 적극 도입한다.

■ 지방행정 인력의 전문화와 정보화·세계화 대비

· 실적계약, 전문요원 양성 등 능력중심의 인사관리와 직무재교육·훈련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도입 확대한다. 창의성이 발현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고 고도성과조직을 구축하며, 능력중심의 인사관리를 통한 적극적 책임행정을 실현토록 한다.

<표 XII - 6> 지식기반행정체제 구축을 위한 주요추진시책

추진시책	사업 유형	세부시책 및 개발사업
지식인프라 강화와 전자정부 실현	지식관리 및 전자정부 실현	· 행정업무 정보화시스템(행정업무 BPR, 지방세, 전자문서, 전자결재, 인사·급여·감사 등 관리시스템)
	행정정보 인프라 구축	· 중앙-도, 도-시·군간영상회의, 케이블TV 설치등
고객중심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	행정지원정보 서비스기반구축	· 민원행정관리시스템, 의료·복지업무지원시스템
	고객참여행정 실현	· 사이버공간을 활용한 공청회, 정책모니터링 등 주민의 행정참여 촉진
	주민생활정보 서비스 구축	· 주민생활편익정보시스템, 건강·의료관리시스템, 사회복지정보시스템 · 재난관리시스템 · 교육·문화·정보시스템
책임경영행정체제 구축		· 기업경영기법 및 예산운영 · 목표중심적 행정수행
계		

주: 위의 사업들은 정보분야 사업비에 기포함



제2장 지역의 국제교류 및 지역협력 촉진

1. 지역의 세계화와 국제협력 실태

1) 현 황

■ 자치단체의 국제관계 및 자매결연 현황

· 지방자치단체의 세계화 추진전략으로는 다양한 시책들이 포함되나, 일반적으로 외국도시 및 기관과의 자매결연과 교류관계 형성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

<표 XII - 7> 전라북도의 자매결연도시 현황 및 교류실적 (단위 : 천명, km²)

Table with 5 columns: 지역, 자매결연도시현황 (대상도시, 인구, 면적), 교류실적. Rows include Japan (Gifu), China (Jiangsu), and USA (Washington).

자료: 전라북도, 국제협력관실, 1999.

1) 1970년대부터 세계화 전략을 추진해 온 일본의 국토청이 도도부현과 시 등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세계화와 지역활성화간의 관계에 대한 조사를 1992 ~ 93년 기간동안 실시하였다. 이 가운데 ‘세계화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느정도 유용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응답자의 77.2%가 각 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세계화전략이 지역활성화에 유용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 전북도청은 일본 가고시마현, 중국 강소성, 그리고 미국의 워싱턴주 등 3개국 3개 도시와 자매결연관계를 맺고 있으며, 2000년 5월 미국의 뉴저지주와 자매결연을 맺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8개 시·군 지역이 16개의 외국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

<표 XII - 8> 시·군별 자매결연도시 현황 및 교류실적 (단위: 천명, km²)

Table with 5 columns: 지역, 자매결연도시현황 (대상도시, 인구, 면적), 교류실적. Rows include Jeonju, Iksan, Gunsan, Jeongeup, Gimje, Namwon, and Wonj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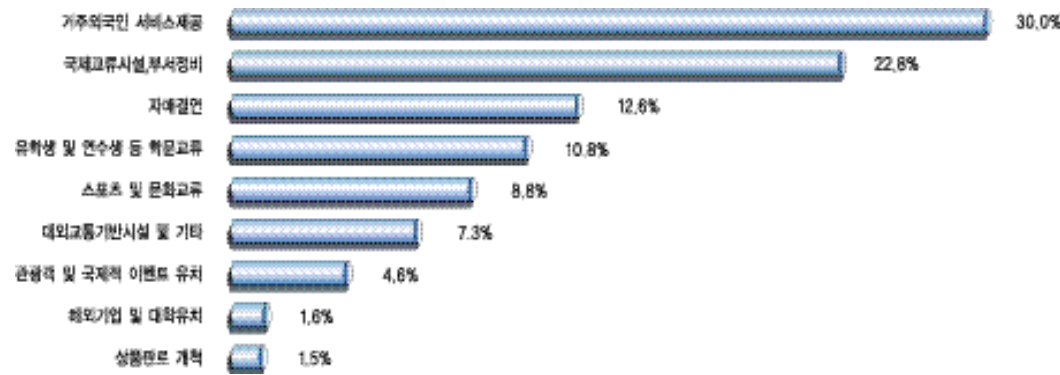
자료: 전라북도, 국제협력관실 자료, 1999.



제2장 지역의 국제교류 및 지역협력 촉진

■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활동

- 지방자치단체의 세계화와 관련하여 20여년 이상 시책을 추진해 온 일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행하는 활동의 대부분인 자매결연, 문화 및 스포츠 교류 외에 거주외국인에 대한 서비스와 국제교류시설 및 부서정비 등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XII-5>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세계화 추진시책 내용

- 우리나라의 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도시간의 국제교류형은 경제교류, 문화교류, 체육교류, 인적교류, 상징사업, 기타 교류 등으로 구분된다. 그동안 전북 지역 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활동은 공무원 중심의 인적교류와 문화·예술·체육 분야에서의 교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따라 국제교류 활동이 지역이익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접적인 연계성을 지니지 않은 채 형식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민선자치단체장 선출이후 국제교류 활동패턴이 경제 및 통상교류, 무역확대를 위한 해외시장 개척, 외자유치 등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접적으로 관련한 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역정주기반의 형성 및 서비스제공 등 외국인의 지역정착에 대한 접근도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XII-9>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자매도시간 국제교류 유형

교류분야	교류 내용
경제교류	· 경제교류협정 체결, 지역기업 진출 및 합작투자사업, 전용공단 조성 및 무역센터 건립, 상품전시관 및 특산물 상설전시관 개관, 시장개척단 파견, 산업시찰, 상공회의소간 자매결연, 중소기업 연합회 조직, 투자설명회, 관광전 개최, 기술이전 협의, 직항로 여객개설
문화교류	· 민속축제 참가, 합창단·시립가무단 및 민속공연단 공연, 사진전 개최, 서적기증, 바둑 및 서예교류전, 국악연수, 민속품 전시회
체육교류	· 스포츠교류단 파견, 친선 스포츠경기, 프로팀 친선경기
인적교류	· 교환(파견)근무, 시찰 및 조사단, 학생교류(수업참관 등)
상징사업	· 공원조성, 한국 정자건립, 거리 명명식, 자매도시 전시관 개관, 명예시민증 수여
기타교류	· 명예박사 학위수여, 위난시 성금원조, 의료봉사활동, 동물교환

자료: 전라북도, 국제협력관실, 2000.

■ 해외시장 개척활동

-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은 상품전시회, 해외박람회 참가, 해외사무소 설치, 외국지역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북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해외자본 유치 노력도 가시화되고 있다.
-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해외시장개척 활동은 시장개척단의 파견, 박람회 참가기회 등을 가급적 확대하되 수출기업들이 자기부담에 의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시장개척지역은 포괄적인 대도시 중심에서 상품의 수요와 기호에 맞도록 지역단위 마케팅 전략으로 전환하여 그 지역의 대형 유통업체를 중점 공략한다는 기본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장개척활동은 KOTRA 등 관련 유관기관의 협조하에 수출상담과 동시에 일정 목표량의 계약이 현지에서 직접 이루어지도록 참가기업과 대상품목을 엄선하고, 우량 바이어와의 연계 등 철저한 사전준비 후 개척단을 파견토록 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선단체장 출범이후 전북지역의 해외시장개척 활동은 회수와 계약액 또는 수출액에서도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4년은 5회의 해외시장 개척단이 계약액 1,77만불의 계약을 이루었으며 이후 해외시장개척단의 활동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제2장 지역의 국제교류 및 지역협력 촉진

<표 XII-10> 전북의 해외시장 개척활동 추이

년도	시장개척단 (방문국)	참여 업체수	예산지원 (백만원)	계약액 (US만\$)
1992	동남아개척단(중국, 태국, 홍콩, 싱가포르)	9	30	713
1993	미주개척단(미국, 멕시코)	10	30	308
1994	남미개척단(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칠레), 상해박람회(중국), 홍콩박람회(홍콩), 동구개척단(러시아, 벨지움, 스웨덴, 핀란드) 등 5회	51	132	1,777
1995	파나마박람회(파나마), 대양주개척단 (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베트남), 구주개척단(헝가리, 터키, 스웨덴, 핀란드), 홍콩박람회(홍콩) 등 4회	36	99	996
1996	아프리카개척단(남아공, 케냐, 사우디아라비아), 서남아 개척단(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보고타박람회 (콜롬비아), 북미개척단(미국, 캐나다), 홍콩박람회 (홍콩), 동남아개척단(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등 6회	62	158	2,024
1997	동남아개척단(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유럽개척단(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광저우박람회(중국), 대양주개척단(홍콩, 호주, 뉴질랜드), 일본자매지역 상담(가고시마, 도쿄, 오사카), 중동지역(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등 6회	69	89	1,336
1998	동유럽개척단(스웨덴, 헝가리, 루마니아), 중남미개척단(멕시코, 브라질, 칠레), 광저우박람회(중국), 중동개척단(사우디, 터키, 아랍에미리트), 요하네스버그박람회(남아연방), 서남아개척단(인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등 7회	69	241	1,356
1999	동유럽개척단(우크라이나, 폴란드, 스웨덴), 아프리카 개척단(케냐, 짐바브웨, 남아공), 동남아개척단(타이완, 필리핀, 스리랑카), 중남미개척단(브라질, 페루, 베네수엘라), 뉴델리 국제무역박람회, 하노이 국제무역박람회, 암만 국제무역박람회, 과테말라 국제무역박람회, 중국자매 결연 상담(북경, 대련) 등 9회	79	283	1,869

자료: 전라북도, 투자통상과 자료, 1999.

■ 외국인 투자유치활동 및 실적

· 전북지역의 외국인 투자현황 및 실적을 살펴보면, 1995년 263백만불에서 1998년에는 2,007백만불로 1998년도 행정자치부의 시·도 기업유치 평가에서 전국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적극적인 외자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 현재 전북지역 내에는 56개의 외국인 투자기업에서 11,632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표 XII-11> 민선이후 외자유치 실적

(단위: 백만불)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계
계	263	312	53	2,007	269	2,904
제조업	263	312	53	2,005	169	2,802
비제조업	-	-	-	2	100	102

자료: 전라북도, 투자통상과,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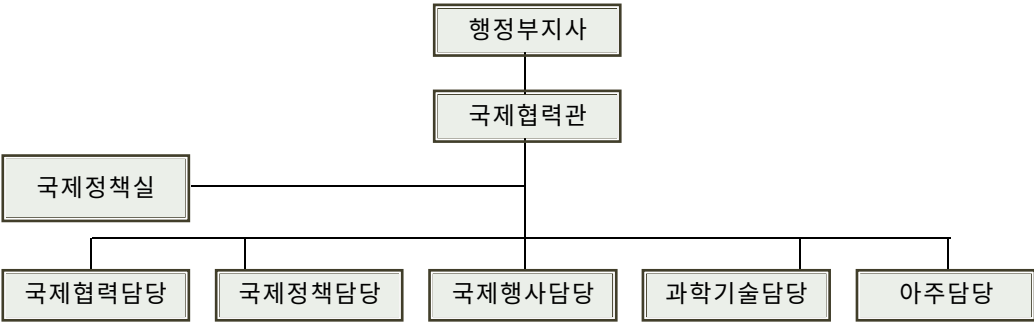
<도 XII-6>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역내 분포현황

■ 국제교류 추진 전담조직·인력

· 지역의 국제간 교류와 국제정책 등 국제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언어구사능력과 더불어 국제관계, 국제법률, 통상 등에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전라북도는 행정부지사 직속인 국제협력관실에서 국제교류업무를 총괄하여 국제협력, 국제정책, 국제행사, 과학기술, 아주 담당 등 5개 분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행정조직과 별도로 계약직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국제정책실을 운영하여 국제간 교류업무에 대응하고 있다.



제2장 지역의 국제교류 및 지역협력 촉진



<도 XII- 7> 전북도의 국제교류 추진기구

- 국제협력과 관련한 도내 인력은 총29명(정규직 18명, 전문계약직 11명)이나 국제협력, 국제정책, 국제행사 분야에 근무하는 인원은 일정기간을 근무하면 승진, 전보 등 인사이동이 불가피함에 따라 전문성이 결여되고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 및 해외시장개척 등 경제·통상분야의 업무추진과 관련해서는 경제통상국하에 투자통상과내 통상기획, 통상지원, 투자유치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다.

<표 XII- 12> 국제교류 전문인력 현황

(단위: 인)

계	행정					전문(계약)				별정 7급	기능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가급	나급	다급	마급			
국제협력관	1	3	4	6	1	4	2	2	3	1	2	29
투자통상과	1	3	5	3	-	1				-	1	14

자료: 전라북도, 국제협력관실·투자통상과, 2000.

■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지역내 물적기반

- 국제교류 추진을 위해서는 전문인력이나 지원조직의 설치와 아울러 외국지역과의 접근성 개선을 위하여 공항, 항만 등 지역내 물적기반의 조성과 외국인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 지역의 세계화 추진의 문제점과 계획과제

■ 자매결연 대상국가의 편중

- 전북 지역내 자치단체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외국 자치단체들은 대부분 미국, 일본, 중국에 편중되어 있다. 그리고 자치단체별 산발적이고 개별적인 출장으로 인해 중복방문과 예비지식의 결여 및 무계획적인 활동으로 지역에 유용한 국제교류 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자매결연 및 공식적인 교류대상 국가의 다변화와 지역경제에 유용한 체계적인 교류활동이 필요하다.

■ 지역주민과 민간단체의 참여 미흡

-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관계 형성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아직 공무원, 의회 의원 등 일부 한정된 계층을 위주로 한 상호방문, 문화체육 행사 등 일과성 위주의 상호교류가 대부분이다. 또한 국제교류가 관 주도의 대외지향적인 시책에 치중되어 있어 지역내 외국인들과 지역주민과의 관계교류 등 대내적이고 민간주도적인 국제교류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국제교류 및 통상전문 인력과 조직의 미비

- 시·군·구 등의 기초자치단체에는 자매결연이나 교류를 전담하는 조직 및 인력이 지극히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국제교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일정기간을 근무하면 인사이동이 불가피하여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의 국제교류와 통상을 활성화하고 추진할 수 있는 국제교류 전문인력의 양성과 함께 전문인력의 광역적 차원의 공동활용과 자치단체 국제교류협의회 설치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와의 연계 미흡

- 전북지역을 비롯한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은 경제통상교류와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에 있어서 외형적인 활동상을 보이고는 있으나 정보, 조직, 인력, 재원 부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의 연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의 원인으



제2장 지역의 국제교류 및 지역협력 촉진

로는 첫째,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부족을 들 수 있다. 기초적인 정보나 자료들은 KOTRA나 현지 지사를 통해 수집이 가능하나 교류대상 지역특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체계적으로 입수하는데는 상당히 한계를 지니고 있다. 둘째, 해외시장 개척에 대한 전북소재 기업의 인식부족과 기업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참여가 극히 소극적인 편이다. 전북소재 중소기업의 국내시장 의존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해외상담 경험과 능력부족, 경비부담 등을 이유로 적극적인 참여가 미흡하며, 특정지역에 집중 중복됨으로써 낭비나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셋째, 지나치게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시장개척이나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장기적 안목에서 시장조사에서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이 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짧은 일정으로 계약체결만을 위한 일회성 상담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넷째, 시장개척 활동이나 투자유치 활동이 비전문성으로 인해 효과적인 상담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즉 유도능력과 전문지식을 겸비한 전문인력 부족으로 원활한 상담진행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3) 지역의 세계화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

- 생산적 국제교류 기능강화와 지역수용기반 구축
- 국제교류의 다원화와 민간참여 확대

■ 민간주도의 교류확대 추진

- 최근 선진국의 자치단체에서는 자매결연 체결 자체보다는 민간교류에 중점을 둔 교류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와같은 민간교류를 바탕으로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전북지역의 국제교류 활성화와 교류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류 사전협의나 사전교류단계부터 주민과 시민단체를 참여시켜 민간주도의 교류로 유도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 교류대상 지역의 다변화와 내실화 도모

- 자매결연 대상지역을 현재의 미국, 일본, 중국 편중에서 벗어나 대상지역 선정 시 지역여건과 교류필요성에 대한 인식 및 사전교류를 통하여 외국 자치단체와의 상호보완성과 유사성에 착안하여 교류상대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동남아, 유럽, 중남미지역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류내용에 있어서도 우호친선 증진 등 추상적이기 쉬운 교류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하는 동시에 지역주민 차원에서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토록 한다.
- 최근 증대되고 있는 해외시장개척 및 외국인 투자유치 등 통상분야의 내실화를 도모함으로써 교류 및 통상 결과의 지역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해외시장개척 활동의 내실화가 요구된다. 새로운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외형적 판촉활동 보다는 제품정보, 홍보, 마케팅 등 관련분야에서 체계적인 지원활동이 필요하다. 둘째, 전북소재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국제수준으로 강화하도록 지원한다. 셋째, 외국인 투자기업의 적극적인 유치가 필요하다. 무한경쟁시대에서 지역의 자본열세를 극복하고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국제화 추진지원 전담조직 및 인력 양성

- 지역의 세계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감각과 이론을 갖춘 전문인력의 육성과 확보가 매우 필요하다. 즉 외국어 구사능력이라든가 마케팅과 해외기술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기업운영 디자인, 상품화 등 국제적인 경영기법 등 국제적인 감각에 맞추어 개선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주요관건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단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해외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해외파견근무 추진을 통해 공무원의 어학 및 국제화 능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언어와 국제관계 전문지식을 갖춘 개방형 전문직 공무원의 채용 확대 등 공무원의 전문화를 도모한다.



제2장 지역의 국제교류 및 지역협력 촉진

■ 국제교류 인프라 기반확충과 지역의 외국인수용태세 확립

- 국제간 무역통상, 투자유치를 위해서 공항, 항만, 고속철도 등 국제 직교류기반의 건설을 촉구하는 한편, 외국인의 지역내 방문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서예비엔날레, 세계소리축제 등 세계적인 수준의 지역문화·예술축제와 2002년 전주월드컵, 2010년 동계올림픽 등 국제행사, 그리고 국제회의를 적극적으로 개최하여 지역의 국제이미지를 홍보토록 한다. 또한 형식적이고 대외지향적(outward-oriented)인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추진전략에서 벗어나 지역내 거주외국인 및 방문객(visitor)에 대한 환대의식을 제고하도록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간 교류가 활발해 짐에 따라 지역내 거주외국인이 편하고 쾌적하게 살기 좋은 국제적 수준(global standard)을 갖춘 지역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4) 세부추진시책

■ 민간중심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민간교류협의체 구축

- 지역의 세계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민간주도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민간부문 국제교류협의체의 설립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산·학·연 부문에 있어서의 선진기술 및 학술교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 전 분야에 있어서의 국제적 수준 확립이 필요하다.

■ 지역의 국제화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

- 민간부문의 교류 활성화를 지향하되 교류의 내실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우선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부문에서 유도적이고 지원적 역할 수행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역내 시·군별로 이루어지는 국제교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광역적인 차원의 자치단체 국제교류협의체의 설치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부족한 지역내 국제교류 전문인력의 공동활용, 해외시장 개척공조체제 구축, 그리고 교류 국가별 전담마케팅을 실시토록 하여 자치단체의 국제화를 촉구한다. 일본의

자치단체 국제화협회(재)는 자치단체의 국제협력을 촉진토록 하기 위하여 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국제협력 가운데 선구적인 역할을 하는 모델사업을 매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자치단체의 해외활동 및 국제협력지원 사례

일본 자치단체 국제화협회(재)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협력 활성화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국제협력 사업 가운데 선구적인 역할을 하는 모델사업을 매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성공사례의 전파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협력 촉진을 도모하고 있다.

- 지원사업: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신규사업 및 질적 개선이 인정되는 지속사업으로 선구적인 국제협력사업
- 지원내용: 1개 사업의 사업경비 합계액의 1/2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300만엔을 상한으로 조성금 교부
- 1999년 지원대상 자치단체: 12개 단체(7현 1구 2시 1정 1촌)
산업경제, 농림수산, 환경, 기술, 교육, 기타 분야 13개사업

자료: 일본자치성, (재)자치체국제화협회, 자치체의 해외활동및국제협력지원, www.clair.nippon.ne.jp

■ 국제직교류를 위한 인프라시설의 확충

-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개발축 가운데 환황해축과 남부내륙축이 전북지역에서 교차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명실상부하게 환황해권의 교류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따라 군장신항, 김제공항, 군산자유무역지역의 조성, 새만금지구 개발 등 국제직교류 시설의 건설이 추진중이거나 국가계획으로 이미 책정되어 있다. 이들 사업들이 실현될 경우, 전북지역은 국제지역과의 직교류가 원활하게 되어 지역내 해외기업 유치 등 지역의 세계화 추진이 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국제행사 및 이벤트 개최 확대

- 국제적인 문화·예술이벤트 개최, 국제적 컨벤션센터 건설 등을 통해 지역의 국제적인 이미지를 제고토록 한다. 이를 위하여 서예비엔날레, 세계소리축제, 전주국제영화제 등을 비롯하여 고인돌군, 판소리 등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독창적이고 세계적인 문화·관광자원을 발굴 홍보하여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토록 한다.



제2장 지역의 국제교류 및 지역협력 촉진

■ 지역주민의 국제화 마인드 확산과 지역수용여건 조성

· 본 지역내에는 1999년 현재 4,177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약 70%가 전주·군산·익산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외국인의 출신지별 분포를 보면, 중국 1,613명(38.6%), 대만 762명(18.2%), 일본 491명(11.8%), 미국 301명(7.2%), 필리핀 295명(7.1%), 기타 715명(17.1%)으로 중국, 일본, 동남아 지역출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지역거주 외국인들이 편하고 쾌적한 분위기에서 살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친절의식 제고와 홍보책자·안내판 발간, 음식 및 숙박시설 개선, 지역내 거주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육 실시 등을 통해 외국인이 살기좋은 지역여건을 조성토록 한다

<표 XII-13> 국제교류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

추진 방향	추진시책 및 주요사업
국제교류의 다변화와 전문화	· 문화권별 국제교류거점 구축 및 확산 추진 · 국제교류 전문인력 양성 및 지방자치단체간 협력 강화
국제교류 민간 참여 확대	· 국제교류민간협의체 구축 운영 · 전문분야별 민간주도 국제교류 지원강화
생산적 국제교류 기능의 확대	· 국제이벤트및 행사개최, 해외관광객 유치 촉진 등 국제교류와 지역경제활동의연계강화 · 외자유치의 내실화와 지방기업의 세계화 추진
국제교류 지역수용기반 확립	· 지역주민 및 공무원의 국제화 마인드 확산 · 국제항만, 공항 등 국제직교류 인프라 및 컨벤션센터 등 국제교역업무 도시기반 조성

2. 지역개발의 시너지효과를 위한 지역간 협력촉진

1) 여건변화와 동향

■ 고속·정보화에 따른 지역문제의 광역화와 광역적 관리 필요성 증대

· 교통통신의 발달, 자동차의 보급 등에 따른 교외화와 사회경제적 기능이 공간적으로 확산될 뿐만 아니라 교통·용수·하천·토지이용·환경분야의 과제는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지역간 공동대처가 요구되는 등 광역행정수요가 급격히 증대하고 있다. 이에도 불구하고 규모의 경제성이나 기능적 연계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행정구역 단위별로 개발사업을 중복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자원의 비효율적인 이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간 협력네트워크 구축 확산

· 무국경시대에 지구화된 경쟁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간 기능적 협력 및 제후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의 진전, 삶의 질에 대한 욕구증대 등에 따라 행정서비스 및 개발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반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정부간 협력 및 정부-민간부문간의 협력요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 행정구역 중심의 지방자치제 진전에 따른 지역간 갈등과 분쟁증대

· 지방자치의 제도적 실시는 행정구역 중심의 행정 및 개발체제를 강화시켰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권한을 증진시켜 지역의 잠재력이나 특성을 감안한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반면, 지역간 개발경합과 분쟁을 증대시킴으로써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손실과 주민복지서비스의 질적 저하마저 초래하고 있다. 지역공동발전계획이나 협력계획은 지역간 갈등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도 XII-8> 지역협력의 필요성 증대배경



제2장 지역의 국제교류 및 지역협력 촉진

2) 기본 방향

- 인접 자치단체간의 다원적인 협력 활성화
- 광역서비스공급·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 남북간 지역교류 촉진 및 민간교류 활성화

■ 인접 자치단체간의 다원적인 협력 활성화

· 농·축·수산업, 제조업, 관광산업 등 제반 분야에 있어 공동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마케팅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위하여 도내 시·군간, 인접 광역자치단체의 시·군과의 다원적인 협력체를 구축하여 지역개발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한다.

■ 광역서비스시설의 공동건설 및 관리운영체계 구축

· 폐기물·쓰레기처리시설, 하·폐수처리시설, 문화·체육·복지시설의 생활권 단위 공동건설 및 운영토록 한다. 특히 최근 정부는 인접자치단체간 공동으로 소각장 등 건설시 국고지원비율을 대폭 상향하여 지원토록 하였다. 그리고 지역내 하수처리시설을 수계별 통합적인 관리와 운영시스템을 구축토록 한다. 또한 광역도시교통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기구의 설치와 운영, 그리고 첨단교통시스템(ITS)의 구축을 통한 대중교통시스템의 공동 운영을 실시토록 한다.

■ 산림, 하천 등 지역공유자원의 협력적 개발과 활용

· 산림, 하천 등 지역공유 및 연계자원의 협력적 개발과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개발토록 하는 한편, 인접 시·군, 시·도, 국가간 광역적인 관광루트의 공동개발 등 관광자원간 연계와 협력적 개발을 촉구토록 한다. 대표적으로 서해안 관광벨트를 수도권 충남 전북 전남으로 이어지는 광역적인 관광벨트로 발전시켜 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접 시·도지역과의 협력적인 개발이 필수적이다.

■ 남북간 지역교류 및 민간차원의 협력 촉진

· 남북간 지역교류는 주로 민간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주요 교류 대상분야로는 다음과 같다. 우선 문화예술 및 스포츠교류 부문에 있어서 지역주민, 청소년, 문화단체의 상호방문과 교류전시, 공연 등 이벤트를 교류 개최하도록 한다. 둘째, 지역특산물 교류 및 상설판매장을 설치하며, 영농·축산·수산기술과 전문가 교류협력체계를 구축토록 한다. 셋째, 군장신항, 서해안 고속도로를 활용하여 북한 서해안지역과의 생산연계시스템 구축과 지역내 중소기업의 북한입지를 지원하는 등 산업생산연계 협력을 촉구한다. 넷째, 군장신항을 활용하여 서해안지역의 크루즈 운항, 공동의 관광진흥 프로그램 개발 및 마케팅 추진 등 환황해권 연계관광벨트를 구축토록 한다.

3) 세부추진시책 및 사업

추진시책	사업유형	세부시책 및 개발사업
지역간협력	인접지역간 다원적 협력체 구축	· 인접시·군간, 도·시·군간 다원적 협력체제 구축 · 도시기능, 산업 등 다양한 기능적 협력체후 촉진
	광역서비스시설 공동건설·운영	· 전주대도시권 광역교통기구 설치 · 광역환경관리체제 도입 및 광역공급처리시설 공동설치·운영
	지역공유자원의 협력적 개발	· 서해안해양관광벨트, 지리산·덕유산 연계관광벨트, 회문산연계 관광개발 등 · 만경강, 동진강, 섬진강 등 생태하천가꾸기 공동추진 · 환황해권 지방정부간 관광벨트 구축 추진
남북교류 협력		· 문화예술 및 스포츠교류, 지역특산물 교류 및 상설판매장 설치, 영농·축산·수산기술 교류, 환황해권 연계관광벨트 구축 등



제3장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자원조달방안

1. 현황과 문제점

1) 지방재정규모

■ 총재정 규모

· 1998년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규모는 총 154조에 달하며, 이 가운데 지방재정 총액은 51조 6,047억원으로 국가재정의 약 34%를 차지한다. 본 지역의 총 재정규모(도본청 및 시·군의 세출결산 순계규모)는 3조 587억원으로 전국 지방재정 총액의 5.9%를 차지한다. 본 지역의 재정규모는 인구 비중 4.1%를 상회하여 타 시·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도본청의 재정규모는 8,459억원으로 지역 총재정규모의 27.7%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시·군에 대한 재정지원을 포함한 총계규모 차원에서 보면, 1998년 현재 도 본청의 재정규모는 1,548.3십억원으로 본 지역의 총재정규모인 3조 8,593십억원의 40%를 차지한다.

<표 XII-14> 지방재정규모 변화추이 (단위: 경상가격, 십억원)

구 분	전국 지방재정	전북(도.시.군)	전북 도본청
총계규모	67,469.4	3,859.3	1,548.3
순계규모	51,604.7	3,058.7	845.9

주: 세출결산 순계 규모
 자료: 행정자치부 재정세제국, 지방재정연감, 1999.

■ 재정규모 증가추이

· 1980년이후 국가재정의 지속적인 증가로 지방재정도 증가되어 왔다. 1980년부터 1998년까지 국가재정은 년평균 10.9%로 증가한데 비하여 본 지역의 총 재정규모는 13.2%씩 증가하였고, 도 본청의 재정규모는 10.3%로 전국 지방 재정증가율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본 지역의 총 재정규모가 상대적으로 높게 증가한 것은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의지와 함께 본 지역의 입지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표 XII-15> 지방재정규모 변화추이 (단위: 경상가격, 십억원)

구 분		1980	1990	1998	연평균증가율 (1980 98)*
국가총생산액		36,857.0	178,628.3	443,1270	9.4
국 가 재 정		10,663.7	44,618.2	154,184.7	10.9
전 북	도본청·시군계	147.2	810.1	3,058.7	13.2
	도 본 청	64.7	429.8	845.9	10.3

주1): 세출결산 순계규모
 2): 년평균 증가율은 1995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산정
 자료: 통계청 주요경제지표, 1999. 행자부, 지방재정연감, 1999.

· 본 지역의 재정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사실은 1인당 재정규모에도 잘 나타난다. 1998년 현재 본 지역내 1인당 지방재정규모는 1,591천원으로 전국 세출액은 1,112천원의 143.0%를 차지한다. 1980년 본 지역의 1인당 세출규모가 전국의 101.6%임 을 감안하면 그동안 본 지역의 1인당 재정규모는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같이 1인당 재정규모가 증대된 것은 정부의 재정지원이 증가된 데도 원인이 있으나 무엇보다도 본 지역은 그동안 인구가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표 XII-16> 1인당 지방재정규모 추이 (단위:십억원, 천원, %)

구분	전 국(지방재정)		전 북		전국대비 비중	
	세출규모	1인당 세출규모	세출규모	1인당 세출규모	세출규모	1인당 세출규모
1980	2,375.3	63	147.2	64	6.2	101.6
1990	16,166.3	371	810.1	391	5.0	105.4
1998	51,604.7	1,112	3,058.7	1,591	5.9	143.0

주: 세출결산 순계기준
 자료: 통계청, 한국주요경제지표각년도;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지방재정연감, 각년도

2) 세입구조 및 변화 추이

■ 세입규모 및 구조

· 1998년 본 지역내 도청,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의 총세입의 순계규모는 3조 8,696억원이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3조 755억원이고, 특별회계는 7,941



제3장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재원조달방안

억원으로 전체의 20.5%를 차지한다. 한편 도 본청의 세입예산은 1조6,639억원으로 지역내 총세입예산 순계규모의 43%를 차지한다. 도 본청 세입예산 가운데 일반예산은 1조 2,458억원이고 특별회계는 4,181억원으로 25.1%를 차지한다.

<표 XII-17> 세입구조 변화추이

(단위:백만원,%)

Table with 5 columns: 구분, 1980, 1990, 1998. Rows include 전국계, 전북총계, 전북도본청 and their sub-categories.

주: 세입결산 순계기준

· 지역의 세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되며, 일반회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등 정부지원금, 지방채 등으로 구성된다. 특별회계 세입은 사업 및 사업외 수입과 보조금, 지방채 등으로 구성된다. 전국의 지방재정 평균을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자체수입은 67.2%이고, 전국 도지역 평균은 61.3%이다.

<표 XII-18> 지방세입 구조 현황

(단위:백만원,%)

Table with 5 columns: 구분, 전 국, 전국도평균, 전북전체, 전북도본청. Rows include 계, 일반 회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기타및지방채, 특별 회계, 사업.사업외수입, 보조금, 지방채.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지방재정연감, 1999.

· 그러나 본 지역의 경우, 시·군을 포함한 지역전체의 자체수입 비중은 53.5%에 불과하고, 더욱 도 본청의 경우에는 자체수입비율이 41.1%로 매우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본 지역 전체와 도 본청의 정부지원비중을 보면 각각43.2%와 46.2%로 전국 평균 26.1%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 세입구조 변화추이

· 본 지역의 세입구조 변화의 특징은 자체수입비중이 특별히 높아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지방세의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의 자체수입비율은 지역전체로는 1980년 54.6%에서 1998년 53.4%로 약간 낮아졌고, 도 본청의 경우는 38.6%에서 41.1%로 높아졌다.2)

<표 XII-19> 기능별 세입구조 변화

(단위:백만원,%)

Table with 7 columns: 구분, 1980, 1990, 1998, 1980, 1990, 1998. Rows include 계, 일반 회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기타 및 지방채, 특별 회계, 사업.사업외수입, 보조금, 지방채.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지방재정연감, 1999.

2) 1998년 현재 전북지역 전체의 재정자립도는 31.7%, 도청은 20.9%이다. 자체수입비율이 재정자립도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재정자립도는 예산총계에 대한 자체수입비율을 반영하는 데 비하여, 자체수입비율은 예산결산 순계기준이기 때문이다.



제3장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자원조달방안

· 도 본청의 경우는 지방세 등 자체수입비율이 같은 기간동안 38.6%에서 41.1%로 약간 높아진 반면, 정부지원은 61.4%에서 51.5%로 낮아졌다. 다만 1980년에는 전혀 없던 지방채 비중이 1998년에는 5.1%로 높아져 새로운 세입원이 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3) 세출구조 및 변화 추이

■ 세출규모 및 구조

· 1998년 본 지역 전체 자치단체의 총세출 순계규모는 3조 8,593억원이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3조 1,111억원, 특별회계는 7,486억원이다. 한편 도 본청의 총 순계세출예산은 1조 5,483억원으로 지역내 전체 자치단체 세출예산의 40.1%를 차지한다. 도 본청 총 세출예산중 일반예산은 1조 1,172억원이고 특별회계는 3,764원으로 전체의 24.3%를 차지한다.

<표 XII-20>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구조 변화추이

(단위:백만원,%)

구 분		1980	1990	1998
전 국 계		2,375,321	16,666,280	51,604,709
전북총계	소계	146,761(100.0)	810,070(100.0)	3,058,696(100.0)
	일반회계	123,617(84.0)	604,005(74.6)	2,428,896(79.4)
	특별회계	23,594(16.0)	206,065(25.4)	629,800(20.6)
전북 도본청	소계	64,680(100.0)	429,787(100.0)	845,942(100.0)
	일반회계	59,521(92.0)	333,245(77.5)	541,303(64.0)
	특별회계	5,159(8.0)	96,542(22.5)	304,639(36.0)

주: 세출결산 순계규모 기준

· 본 지역의 세출구조를 살펴보면, 지역전체의 총세출액에서 사업예산은 전체의 73.0%로 전국평균이 69.9%에 비해 다소 높는데 비하여 경상예산과 채무상환이 각각 19.3%와 4.3%에 불과하다. 특히 도 본청의 경우, 사업예산은 82.1%로 높는데 비하여 경상예산과 채무상환은 각각 8.9% 및 3.8% 수준에 불과하여 상대적으로 건전한 재정운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표 XII-21> 세출구조 변화추이

(단위: 십억원, %)

구 분	계	경상예산	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 기타
전 국	67,469.4 (100.0)	12,624.3 (12.7)	46,984.6 (69.6)	4,374.2 (6.5)	3,486.3 (5.2)
전북도총계 (도·시·군)	3,859.3 (100.0)	743.4 (19.3)	2,820.2 (73.1)	164.6 (4.3)	131.1 (3.4)
전북도본청	1,548.2 (100.0)	137.4 (8.9)	1,271.5 (82.1)	59 (3.8)	80 (5.2)

주: 세출결산 총계기준(경상가격)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지방재정연감, 1999.

· 본 지역내 도 본청의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액 구성비 변화를 보면, 경제개발비가 55.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은 사회개발비(23.0%), 일반 행정비(9.3%)의 순으로 되어있다. 1980 1998년 기간동안 경제개발비는 57.6%에서 55.7%로 다소 낮아진 반면, 사회개발비는 13.5%에서 23.0%로 높아져 지방행정의 기조가 점차 복지지향인 차원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XII-22> 도본청 일반회계 세출의 기능별 비중변화추이

(단위:%)

구 분	1981	1991	1998
계	100.0	100.0	100.0
일반 행정비	15.5	7.8	9.3
사회 개발비	13.5	21.0	23.0
경제 개발비	57.6	57.4	55.7
민 방 위 비	0.5	13.3	3.5
지원.기타경비	12.9	0.5	8.5

주1: 세출예산 기준

주2: 1998년의, 경제개발비에는 문화.체육비, 산업경제 및 지역개발비 포함

4)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분석

■ 도본청의 지방재정 운영분석

·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판단하기 위해 자주성, 안정성, 생산성, 노력성을 나타내는 10개의 지표³⁾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지방재정의



제3장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재원조달방안

건전성을 나타내는 세입·세출충당율, 지방채채무상환비율과 재정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투자비비율, 자체수입증감율, 경상경비증감율 등 5개 지표에서 여타 도에 비해 우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본 지역의 재정상황이 재정자립수준 등 자주성 면에서는 떨어지나 안정적인 재정운동을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투자비 비율이 높아 비교적 생산적으로 운영되며, 자체수입증감 및 경상경비 증감율이 여타 도지역에 비해 낮아 재정효율화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XII-23> 도본청의 재정분석 지표 (단위: %)

부 문	분석영역	단위 지표	분석결과		
			도 평균	전북도	비교
재정의 건전성	자주성	재정자립도	39.29	27.55	○
		재정력지수	83.29	55.63	○
	안정성	경상수지비율	22.30	29.76	○
		세입·세출충당율	97.22	98.98	●
재정의 효율성		지방채채무상환율	4.33	3.55	●
	생산성	재정계획운영비율	103.69	90.46	○
		세입예산반영비율	101.30	105.61	○
		투자비비율	80.57	84.84	●
	노력성	자체수입증감율	82.62	94.09	●
		경상경비증감율	94.09	89.71	●

주: 전북도 본청에 한하며, ●는 도평균을 상회하여 우위상태, ○는 저조함을 나타냄
자료: 행정자치부, 1998회계년도 지방재정종합분석, 1999.

3) ①재정자립도는재정수입의자체충당능력을나타내는세입분석지표로비율이높을수록세입정수기반이좋은의미②재정력지수는기본행정수행을위한재정수요의실질적확보능력을나타내는세입분석지표로높을수록세입자주기반이 좋음. ③경상수지비율은경상경비의일반재원수입충당능력을나타내는세입·세출을동시에고려한분석지표로비율이 낮을수록채무구조의탄력성이 좋음④세입·세출충당비율은세출소요액을당해연도세입으로충당할수있는능력을나 타내는세입·세출을동시에고려한지표로100%에근접할수록균형을이룸⑤지방채상환비율은일반재원충당능력을 나타내는지표로비율이낮을수록채무구조가좋은상태⑥재정계획운영비율은지방재정계획상투자사업계획의실제에 산반영정도를나타내는지표로100%에근접할수록계획적인재정운동을나타냄⑦세입예산반영비율은지방세입의반 영정도를나타내는지표로100%에근접할수록세입예산의계획적운용을의미⑧투자비비율은투자사업비의전체결산 액중점유비를나타내는세출분석지표로비율이높을수록합리적으로운영⑨자체수입증감율은자체수입의연도간증 감상황을나타내는세입분석지표로비율이높을수록세입정수노력이 좋음⑩경상경비증감율은경상경비의연도간증 감상황을나타내는세출분석지표로비율이낮을수록경상경비의절감효과가 높음

■ 시·군지역의 지방재정 운영분석

· 본 지역내 시·군지역의 재정건전성을 전국의 여타 시·군지역과 비교한 바에 의하면, 전반적으로는 재정의 자주성은 낮으나 재정의 효율화를 위한 노력성에서는 비교적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시부 지역에서는 전주시를 제외한 모든 시지역이 재정자립도, 재정력지수 등 자주성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세입·세출충당율, 자체수입증감율 등이 다소 상회하여 재정의 안정적 운용과 건전화를 위하여 자치단체들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군부 지역에 있어서 재정자립도는 전국 군평균을 다소 상회하나 재정력 지수가 전반적으로 낮아 자주재원수준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그러나 자체수입 및 경상경비증감율 등은 평균을 상회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XII-24> 시·군별 지방재정 건전성 분석자료 (단위: %)

구 분	재 정 자립도	재정력 지 수	경상수지 비 율	세입·세출 충 당 율	지방채 상환비율	재정계획 운영비율	세입예산 반영비율	투자비 비 율	자체수입 증 감 율	경상경비 증 감 율
9개도평균	39.29	83.29	22.30	97.22	4.33	103.69	101.30	80.57	82.62	94.09
전북도청	27.55	55.63	29.76	98.98	3.55	90.46	105.61	84.84	88.16	89.71
72개시평균	61.32	66.41	43.50	90.02	5.01	90.69	100.84	72.55	97.32	97.45
전주시	78.80	91.37	50.03	90.79	5.42	51.32	101.37	58.00	110.19	102.30
군산시	49.98	41.03	41.72	88.25	0.95	84.79	102.54	68.81	97.83	89.13
익산시	53.63	41.17	44.81	89.47	3.27	74.12	98.14	70.12	106.11	101.67
정읍시	34.34	19.01	51.99	94.12	14.08	96.02	104.73	72.45	96.01	101.25
남원시	34.17	17.51	52.23	96.34	7.21	86.58	101.45	70.52	93.36	99.84
김제시	36.07	17.76	52.81	96.08	7.49	96.69	100.85	71.16	96.57	101.51
9개군평균	34.49	23.13	52.54	93.64	2.76	97.58	101.39	72.06	98.81	98.11
완주군	45.40	22.21	55.54	95.59	1.82	89.20	99.90	71.77	94.05	103.42
진안군	34.83	7.75	53.05	88.69	1.37	99.87	101.10	73.74	93.35	105.03
무주군	43.56	14.39	50.52	85.71	3.90	92.67	101.22	67.56	110.56	93.11
장수군	32.79	9.24	53.33	92.56	1.47	85.38	98.74	70.58	122.79	108.62
임실군	30.85	8.58	54.44	95.20	4.54	102.25	100.97	65.65	142.60	102.00
순창군	32.16	7.62	51.52	97.03	4.14	80.65	102.04	70.61	107.25	96.24
고창군	29.69	12.34	50.23	95.50	7.55	95.97	99.52	76.42	106.61	100.97
부안군	47.78	15.15	52.75	91.08	3.41	73.54	98.44	72.86	105.63	109.08

자료: 행정자치부, 1998회계년도 지방재정종합분석, 1999.



제3장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자원조달방안

2. 지방재정 여건변화와 재정수요 전망

1) 지방재정 여건변화

■ 경제성장의 안정기조 정착

· 국가 및 지방재정의 규모를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국가경제성장이다. 1980년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는 IMF 경제침체에도 불구하고 년평균 9%의 높은 성장을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도 선진국형으로 전환됨에 따라 성장률이 둔화되는 안정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국가재정, 정부의 투융자 등이 상대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어 지방재정에 있어서도 변화가 요구된다.

<표 XII-25> 경제성장 및 재정증가율 전망 (단위:%)

구 분	1999	2000	2005	2010	2020
경제성장율	7.5	6.4	5.7	3.5	3.0
재정증가율	9.6	5.0	6.0	5.4	3.5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건전개정 조기회복을 위한 대책방안, 1999.

■ 국가 및 지방재정수요 증대

· 지방자치제의 확대 및 민주화 등 정치·사회환경의 변화로 지역주민의 참여와 이에 수반한 행정수요는 크게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소득수준의 향상과 가치관의 변화로 주민생활복지 및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수질 및 환경보전, 그리고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등 광범위한 분야의 공공서비스 수요를 증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의 재정규모와 지원은 상대적으로 축소되는데 비하여 행정 및 주민복지서비스 요구는 커지게 됨에 따라 향후 지방재정에 있어서는 지방의 자체재원 확충이 주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재정의 경직성 증대

· 국가 및 지방재정에서 점차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 분야는 복지·후생관련 부

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예산은 경상경비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재정운용에 있어 경직성을 증대시키게 되며, 생산성을 지닌 사업예산의 폭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향후 지방재정운용의 관점은 재정의 경직성을 최소화시키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재정적 여력을 키워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재정규모 전망

■ 총재정규모 전망

· 지방재정에 있어 정부의 역할이 큰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재정 규모는 국가경제 및 국가재정 규모나 성장에 크게 좌우된다. 여기서는 2020년까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과 이에 기초한 국가재정 증가율 전망을 기초로 전망하였다. 본 지역의 재정규모 증가율은 1980~98년 기간동안 국가재정 증가율과 본 지역의 재정증가율 탄력치를 적용하여 2005년, 2010년, 2020년 기간별로 추정하였다.

<표 XII-26> 지방재정증가율 전망 (단위:%)

구 분		1980 98	2005	2010	2020
국 가 재 정		10.9	6.0	5.4	3.5
전 북	총 계	13.2	7.3	6.5	4.2
	도분청	10.3	5.7	5.1	3.3

주: 1980~98년간 연평균증가율은 결산예산 순계기준

· 본 지역의 총 재정규모(예산액 기준)는 1998년 현재 3조 9,386억원에서 2020년 13조 3,341억원으로 약 3.4배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도분청의 재정규모는 1조 6,324억원에서 4조 2,694억원 약 2.6배의 성장이 예상된다. 이에따라 도분청의 예산비중은 1998년 41.4%에서 2020년 32.0%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제3장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자원조달방안

<표 XII - 27> 지방재정 총량규모 전망추이 (단위: 십억원, %)

구 분		1998	2005	2010	2020	연평균증가율 (1998 ~ 2020)
전 북	도·시·군 합 계	3,938.6	6,449.7	8,836.7	13,334.1	5.7
	도 본 청	1,632.4	2,406.3	3,085.8	4,269.4	4.5

■ 순세입규모 전망

· 순세입은 총세입에서 지방채를 제외한 세입액이다. 본 지역의 순세입 규모는 그동안 지역 세입예산증가율과 전국의 지방재정규모의 증가추이 전망을 토대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본 지역의 지방세 등 자체수입 전망은 지역총생산액 (GRP) 및 지방재정 증가율과 연계하여 추정하였다.

<표 XII - 28> 지방재정 및 자체수입 증가율 전망 (단위: %)

구 분			1990 - 98	2005	2010	2020
전북도 총계	GRP		4.5	7.07	6.27	5.05
	순세입		13.2	7.3	6.5	4.2
	일반회계	지 방 세	9.1	7.4	6.6	4.8
		세외수입	18.2	7.4	6.6	4.8
	특별회계(사업.사업외수입)		11.4	9.3	8.3	6.0
도본청	순세입		12.4	5.7	5.1	3.3
	일반회계	지방세	9.2	5.8	5.2	3.8
		세외수입	9.7	5.8	5.2	3.8
	특별회계(사업.사업외수입)		13.8	6.5	5.8	4.2

주1: 1990 - 98년간 연평균증가율은 결산액 순계기준
주2: 전북도 전체의 지방세 및 특별회계 증가율은 GRP대안과 지방재정 증가율 대안치 평균을 적용하였고, 세외수입증가율은 세입원 발굴한계와 지방재정수입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지방세 증가율과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도 본청 예산은 지역전체예산변화의 함수이므로 도전체의 지방재정과 자체수입 증가율의 탄성치를 적용·추계

· 전북 도본청의 순세입규모(예산액 기준)는 1998년 현재 1조 5,469억원에서 2020년 4조 458억원으로 2.6배의 증가가 예상된다. 이 가운데 지방세, 세외수입(일반 및 특별회계) 등 자체수입액 규모는 2조 5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순세입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은 1998년 41.3%에서 2020년 47.4%로 세입구조가 개선될 것이 전망된다.

<표 XII - 29> 순세입규모 및 자체수입 증가전망 (단위:십억원, %)

구 분		1998	2005	2010	2020
총 세 입		1,632.4	2,406.3	3,085.8	4,269.4
순 세 입		1,546.9	2,280.3	2,924.2	4,045.8
자체 수입(일반+특별)		675.1	1,032.9	1,356.5	2,021.8
일반회계	소계	1,148.3	1,651.8	2,080.7	2,775.1
	지방세	181.7	269.6	347.4	504.4
	세외수입	49.3	73.2	94.3	136.9
	의존재원	871.8	1183	1477.4	1910.2
	지방채	45.5	126.0	161.6	223.6
특별회계	소계	484.1	754.5	1,005.1	1,494.3
	사업,사업외수입	444.1	690.1	914.9	1,380.5
	지방채	40.0	64.4	90.2	113.8

주: 순세입은 총세입에서 지방채를 제외한수치이며, 자체수입은 일반회계의 지방세와 세외수입, 특별회계의 사업 및 사업외 수입을 포함

■ 총세출규모 및 투자수요 전망

· 본 지역 도본청의 세출규모 및 투자수요는 그동안 세출예산 증가율과 전국의 지방재정규모 증가율을 토대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투자수요전망은 세출예산 가운데 경상적 예산과 사업예산으로 크게 구분하여 추정하였다. 도본청의 총세출규모(예산액 기준)는 1998년 현재 1조 6,324억원에서 2020년 4조 2,694억원으로 약 2.6배가 증가하며, 투자수요 규모는 전체의 50.6%인 총 2조 1,60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표 XII - 30> 총세출 및 부문별 세출규모 전망 (단위:십억원)

구 분		1998	2005	2010	2020
계		1,632.4	2,406.3	3,085.8	4,269.4
일반회계	소계	1,148.3	1,651.8	2,080.7	2,775.1
	경상예산	397.2	571.3	719.7	959.9
	사업예산	703.3	1,011.8	1,274.4	1,699.7
	채무상환	1.9	2.7	3.4	4.6
	예비비,기타	45.9	66.0	83.2	110.9
특별회계	소계	484.1	754.5	1,005.1	1,494.3
	사업,사업외	149.2	232.6	309.8	460.6
	채무상환	334.9	522.0	695.3	1,033.7

주: 일반회계의 경상예산에는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가, 사업예산에는 자본지출, 채무상환에는 용자 및 출자와 보전재원,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에는 내부거래, 예비비, 기타 포함



제3장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재원조달방안

· 도본청 일반회계 세출의 기능별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사회 및 경제개발비 등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성 경비에 소요되는 비중은 1998년 현재 9,044억 원에서 2020년에는 2조 1,517억 원으로 약 2.4배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사회개발비의 투자비 증대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행정수요 증대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XII - 31> 도본청 일반회계의 기능별 세출비중 변화 (단위:십억원, %)

구 분	1998	2005	2010	2020
계	1,148.3(100.0)	1,651.8(100.0)	2,080.7(100.0)	2,775.1(100.0)
일반 행정비	106.6(9.3)	180.8(10.9)	255.1(12.3)	421.6(15.2)
사회 개발비	263.8(23.0)	411.2(24.9)	546.0(26.2)	799.8(28.8)
경제 개발비	640.6(55.8)	889.8(53.9)	1,088.1(52.3)	1,351.8(48.7)
민방위비 및 기타	137.3(12.0)	170.0(10.3)	191.5(9.2)	201.9(7.3)

주: 1998년의 사회개발비에는 1980, 91년의 사회복지, 문화.체육비 포함되며, 경제개발비에는 산업경제 및 지역개발비 포함

■ 투자가용재원 및 부족재원 전망

· 2000 2020년 계획기간 동안 도본청의 순세입규모는 총 60조 3,44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투자가용재원은 도본청의 순세입에서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세입잔여액이 된다. 2000 2020년 도계획 기간동안 지방세입에서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고 예상되는 투자가용재원은 총 43조 8,65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투자수요를 나타내는 사업예산은 총 47조 1,905억 원에 달하여 계획기간 동안 약 3,325억 원의 부족재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족재원의충당을 위해서는 세입의 5~6% 수준의 지방채의 발행이 요구된다.

<표 XII - 32> 전북도의 가용재원 및 투자수요 규모 (단위:십억원)

구 분	2000 2020 (계)	2000 2005	2006 2010	2011 2020
세 입	60,344.2	11,964.5	13,269.0	35,110.7
투자가용재원	43,865.2	8,592.7	9,600.9	25,671.6
투자수요	47,190.5	9,252.6	10,333.6	27,604.3
부족재원	3,325.3	659.9	732.7	1,932.7

3.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방향

- 지방재정 자립기반 확충 및 자주재정권한 확대
-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건전성 확보
- 지방재정격차 완화를 통한 균형적 발전 도모

■ 지방재정 자립기반 확충 및 자주재정권한 확대

· 지방재정의 자주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세, 세외수입 등 지방고유재원 비율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자치단체가 지역의 일에 대해 주체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재정적 의사결정권한을 확대토록 한다.

■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건전성 도모

· 자치단체의 경상경비 절감 및 투자경비 확대, 경영 및 경쟁개념의 과감한 도입과 성과관리체계 강화, 예산절감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등 지방예산편성의 효율화 및 예산관리의 합리화를 추구하는 재정운영 평가를 통하여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한다.

■ 지방재정격차의 완화

· 지방세원이 대부분 대도시에 편중되어 자치단체간 재정격차가 심하여 농촌지역 등의 재정력이 취약함에 따라 지역간의 개발격차를 발생시키고 있다.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투자과 지원의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등 지방재정제도를 개선토록 한다.

4. 세부추진시책

■ 세입기반의 확충 및 다원화

· 지방세 과표현실화와 지역잠재세원의 발굴 및 세원화, 경영수익사업 활성화를



제3장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자원조달방안

통한 자주재정기반 확충 및 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대를 통해 지방세입 기반을 확충하고,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차등보조금, 지방채 활성화 등 지방 재정제도를 개선토록 한다.

■재정진단제도 도입을 통한 재정운용의 효율성 도모

· 지방행정서비스의 외부자원 활용(아웃소싱) 및 민영화 확대, 재원의 합리적 배 분 및 투자효과 극대화를 위한 재정지출 평가관리체계 강화 등을 통해 지방재 정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토록 한다.

■지역개발 추진을 위한 다원적인 자원조달방안 강구

· 중장기 개발계획과 중앙정부 예산과의 연계 등 투자협약제 활용, 중장기 투자 계획 및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 민자유치, 프로젝트 파이낸싱, 주민주주 제 등 다원적 자원조달방안을 강구토록 한다. 이와같이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하여는 중앙정부의 국세 및 지방세 비중의 조정, 지방정부의 자율조세권 부 여, 정부 보조금과 양여금의 포괄적 사용(block grant) 확대를 통한 지방의 자율적 재정 운용권의 확대가 필요하다. 아울러 지역별 개발수준, 재정력 등을 감안한 정부지원의 차등화를 통한 재정의 형평화 등 국가적 차원의 조치와 제 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계획의 집행과 관리

제1장 투자사업계획

제1장 투자사업계획

제2장 계획의 집행과 관리

1. 투자사업 선정의 접근방법

1) 대상사업의 선정기준

■ 중앙정부 추진 및 지원사업

- 제4차 국토종합계획, 군산-장항광역권 개발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 중앙정부에서确定的한 부문별 계획에 제시된 사업과 중앙정부가 추진·지원하는 사업

■ 도 추진 및 지원사업

- 지역개발사업 가운데 도에서 직접 추진하거나 도의 지원이 사업추진에 있어 필수적인 사업

■ 광역적 기초단체 사업

- 기초자치단체가 제시 또는 추진할 사업 중 도 전체의 지역발전방향과 인접 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거나 인접 자치단체의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

2) 투자사업 우선순위의 결정기준

■ 계획목표 달성도

-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하는 국가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부문별로 제시한 목표와 전략에 부합하는 사업과 제4차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의 구체화와 보완적인 사업

■ 지역개발 파급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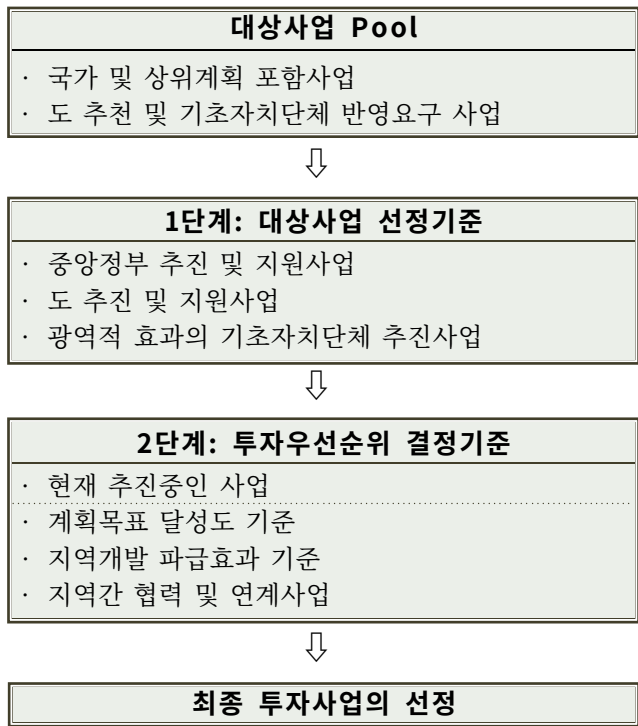
- 지역내 고용창출, 산업구조 고도화 등 지역개발의 선도효과 및 타 사업과의 연계성이 높은 사업, 지역경제 및 개발 파급효과가 큰 사업, 자치단체의 재정수입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1장 투자사업계획

■ 지역간 협력 및 연계사업

- 지역개발사업 추진시 재원조달이 용이하고 자체적으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사업, 기능적 연계성이 높거나 생활권 단위의 서비스공급이 가능한 사업, 지역간 협력에 따른 개발의 시너지효과가 높은 사업



<도 XIII- 1> 사업선정의 단계별 접근도

2. 총투자규모 및 투자비 분담내역

■ 총투자 소요

- 본 지역에서 2000~2020년 기간동안 도 종합계획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총투자소요액은 약53조 5,937억원으로 추정된다. 투자대상사업의 총비용은 62조 2,331억원이나 이 가운데 8조 6,394억원은 기투자액이다. 이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총투자소요액이 약 378조원(도로, 철

도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중점)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투자비용의 14.3%를 차지하고 있다.

<표 XIII-1> 총투자비 산정 및 분담내역 (단위: 억원, %)

시책 부문	총투자 소요액 (A-B)	총사업비 (A)		기투자 (B)	주체별 투자내역			
			%		국 비	도비	시군비	기 타
계	535,937 (100.0)	622,331 (100.0)	100.0	86,394	365,481 (58.7)	43,430 (7.0)	74,609 (12.0)	138,811 (22.3)
도시·지역 개발부문	40,082 (7.5)	41,054 (100.0)	6.6	972	7,381 (18.0)	1,508 (3.7)	6,243 (15.2)	25,922 (63.1)
산업 부문	57,714 (10.8)	77,067 (100.0)	12.4	19,353	45,615 (59.2)	10,519 (13.6)	3,670 (4.8)	17,263 (22.4)
교통·정보부문	277,418 (51.8)	318,531 (100.0)	51.2	41,103	256,793 (80.6)	14,809 (4.6)	30,086 (9.5)	16,843 (5.3)
환경·방재부문	54,922 (10.2)	74,634 (100.0)	12.0	19,712	39,036 (52.3)	6,904 (9.3)	23,562 (31.6)	5,132 (6.8)
문화·관광부문	96,761 (18.1)	101,493 (100.0)	16.3	4,732	14,821 (14.6)	7,143 (7.0)	9,436 (9.3)	70,094 (69.1)
사회복지· 기타부문	9,030 (1.7)	9,552 (100.0)	1.5	522	1,835 (19.2)	2,548 (26.7)	1,612 (16.9)	3,557 (37.2)

■ 부문별 투자분담내역

- 부문별 투자소요 비중을 보면, 교통·정보부문이 51.8%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문화·관광부문(18.1%), 산업부문(10.8%), 환경·방재부문(10.2%), 도시 및 농어촌개발(7.5%), 사회복지(1.7%)의 순이다. 이를 제2차 도종합계획(1992~2001)과 비교해 보면, 본 계획에서는 교통·정보부문, 문화·관광부문, 환경부문 등에 대한 투자비중이 현저하게 높아진 반면, 산업경제 및 도시개발 등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져 도정의 우선순위 변화를 시사하고 있다.
- 2차 도계획의 부문별 투자분담내역: 산업경제부문(49.8%), 교통·지역개발(33.8%), 보사환경(8.1%), 문화관광(5.9%), 일반행정 및 기타(0.7%)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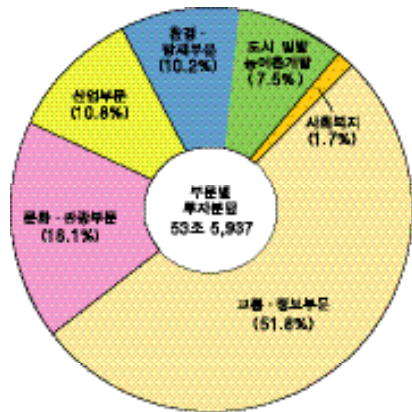
■ 주체별 투자분담내역

- 주체별 투자소요 비중을 보면, 국비가 58.7%로 가장 높고, 도비와 시군비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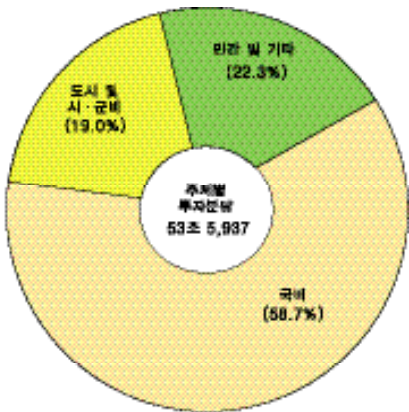


제1장 투자사업계획

합친 지방비가 19.0%, 정부공사 및 민간자본 비율은 22.3%의 순이다. 국비의 투자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은 계획기간 동안에 투자토록 계획되어 있는 호남 고속철도, 군장산업단지, 새만금개발사업 등 대규모 국가개발사업이 구체화되거나 추진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기인한다.



<부문별 투자분담>



<주체별 투자분담>

<도 XIII - 2> 투자분담내역

■ 단계별 투자분담 내역

· 2000 2020년 계획기간 동안 상반기 5개년간(2000 2004)에 소요될 투자액은 전체의 34.0%인 18조 2,217억원, 2005 2009년은 29.1%, 2010 2014년은 16.0%, 2015 2020년은 20.9%로 대부분(63.1%)의 사업을 중단기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지역발전촉진을 도모케 한다. 부문별 사업 가운데 초기 5개년 계획기간동안 가장 투자비중이 높게 나타난 분야는 교통·정보부문으로 45.7%, 그 다음이 문화·관광부문 18.5%, 산업부문 17.3%, 환경방재부문 10.9%, 도시 및 지역개발, 사회복지부문은 5.2%와 2.4%가 투자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XIII - 2> 단계별 투자비 소요

(단위: 억원, %)

시책 부문	총투자 소요액	연차별 투자계획						2005 - 2009	2010 - 2014	2015 - 2020
		계	2000	2001	2002	2003	2004			
계	535,937	182,211 (100.0)	33,811	39,061	32,377	34,151	42,809	156,091	85,681	111,950
		(34.0)	-	-	-	-	-	(29.1)	(16.0)	(20.9)
도시·지역 개발부문	40,082	9,488 (5.2)	2,224	1,830	1,898	1,924	1,612	8,510	10,341	11,738
		(23.7)	-	-	-	-	-	(21.2)	(25.8)	(29.3)
산업 부문	57,714	31,513 (17.3)	9,234	8,212	4,973	4,168	4,926	16,268	7,390	2,543
		(54.6)	-	-	-	-	-	(28.2)	(12.8)	(4.4)
교통·정보 부 문	277,421	83,323 (45.7)	15,571	14,444	14,419	17,003	21,882	77,079	45,781	71,243
		(30.0)	-	-	-	-	-	(27.8)	(16.5)	(25.7)
환경·방재 부 문	54,922	19,894 (10.9)	2,913	7,566	3,628	3,058	2,730	21,571	7,887	5,570
		(36.2)	-	-	-	-	-	(39.3)	(14.4)	(10.1)
문화·관광 부 문	96,761	33,658 (18.5)	3,358	6,041	6,428	7,169	10,662	30,938	12,864	19,301
		(34.8)	-	-	-	-	-	(32.0)	(13.3)	(19.9)
사회복지· 기타부문	9,030	4,341 (2.4)	507	972	1,030	837	995	1,724	1,410	1,555
		(48.1)	-	-	-	-	-	(19.1)	(15.6)	(17.2)



제1장 투자사업계획

■ 부문별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 도시 및 농어촌 등 지역개발부문에서 신도시와 신시가지개발 사업은 수요 전망 및 연계사업을 고려하여 2009년까지는 44.9%의 상대적으로 낮은 투자사업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 산업부문의 사업은 산업단지 조성 등 선도투자가 필요하거나 농축수산업의 진흥 등 계속추진사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2009년까지 총투자 소요액의 82.8%의 투자사업계획을 제시하여 높은 투자우선순위를 부여하였다.
- 교통·정보부문의 총투자소요액은 추진중인 대규모 국가추진사업의 비중이 높아 계획상반기의 투자비중이 2004년까지 30.0%, 2009년까지 57.8%의 높은 투자우선순위를 부여하였다.
- 환경·방재부문은 대부분의 사업이 하천개수, 환경처리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어 2009년까지 75.5%의 높은 투자우선순위를 부여하였다.
- 문화·관광, 사회복지 부문은 본 계획의 목표 및 전략 차원에서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2009년까지 각각 66.8%와 67.2%에 이르는 높은 투자우선순위를 부여하였다.

3. 재원조달방안

1) 기본방향

■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재원조달

-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재원은 중앙정부의 예산확보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에 의거하여 추진토록 한다. 특히 중앙정부 사업의 조속 추진을 위하여 중점개발사업의 선정 및 전담팀의 구성을 통하여 재원조달에 치중토록 한다.

■ 농어촌 및 낙후지역 정주여건 개선사업의 재원조달

- 농어촌·낙후지역 정주여건 조성사업, 농축수산업 및 제조업등 지역산업 육성, 정보망 구축에 관련된 사업은 해당 중앙부처별 계획 프로그램과 재원확보를 추진토록 한다.

■ 관광개발 등 수익적인 지역개발사업의 추진

- 관광개발 및 수익성을 지닌 지역개발사업은 원칙적으로 민자 및 외자유치를 통하여 재원을 조달토록 한다.

2) 지역개발 투자재원의 조달방안

■ 중앙정부 투자재원 확보추진 전략

- 지역개발사업을 소관 중앙부처 단위로 분류하여 중앙부처의 다양한 시책과 재정지원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재원확보를 추진토록 한다. 중앙부처의 해당부서와 긴밀한 정책연합 및 협력을 통하여 부처별 예산신청 심의 확정단계에 이르기까지 협력·제휴체계를 구축하여 재원을 조달토록 한다.

■ 외국자본 및 민간자본 유치촉진방안

- 수익성이 있는 지역개발사업의 선별 및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민간이나 외국투자자에게 적극 홍보와 마케팅 추진
- 제3섹터방식,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을 통한 재원조달 강구
- 민자 및 외자유치 사업에 대해서는 인프라 구축, 공동투자, 토지이용 및 세제상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 제공
- 민간자본 유치촉진을 위해서 공공투자사업 주변지역의 토지개발권 부여, 민간자본 유치 및 절차와 방법, 조세감면 등 다양한 지원책 강구



제2장 계획의 집행·관리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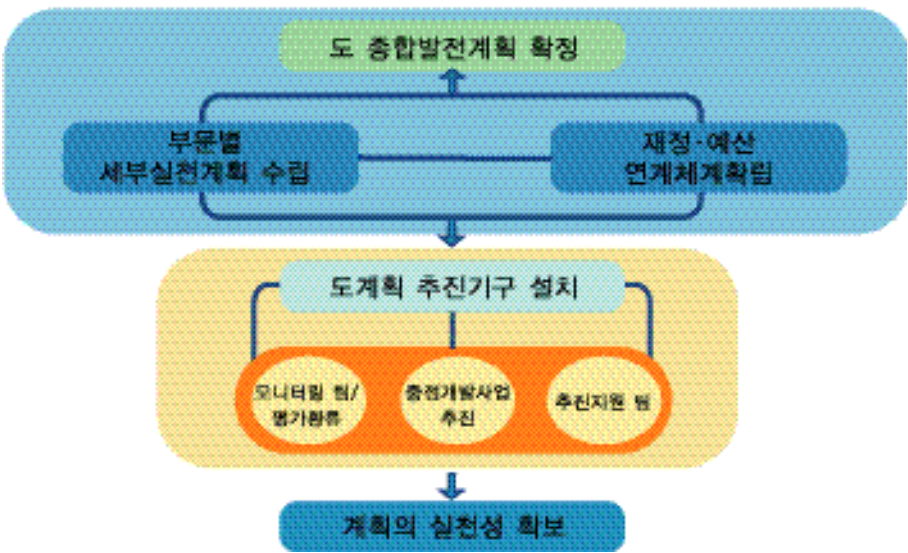
1. 기본 방향

- 계획의 집행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및 실무적 장치 확보
- 계획의 추진여부의 지속적 점검과 평가환류체계 도입

2. 추진시책 및 방안

■ 계획의 효율적인 집행체계 구축

- 계획의 집행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및 실무적 장치를 확보토록 한다. 이를 위하여 도 종합발전계획의 부문별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재정 및 예산운영 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지역개발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민자유치, 외자, 중앙정부 예산확보 등 다양한 재원조달방안을 강구토록 한다.
- 중앙정부 예산확보를 위한 부문별 전담팀 구성 등도 계획 집행추진 전담체계 구축 및 민·관 공동의 도계획 집행지원협의체 설치·운영



<도 XIII-3> 도계획 추진조직체계

■ 계획의 추진점검·평가·환류체계 도입

- 계획의 추진여부 및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전담조직 및 제도를 도입한다. 즉 도계획 추진점검반 및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도 계획의 추진상 문제점, 여건변화에 따른 수정보완 등 계획의 평가·환류체계를 도입하여 지속적으로 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토록 한다.

3. 중점개발사업의 추진

■ 지역개발 중점추진사업에 대한 특별관리 및 추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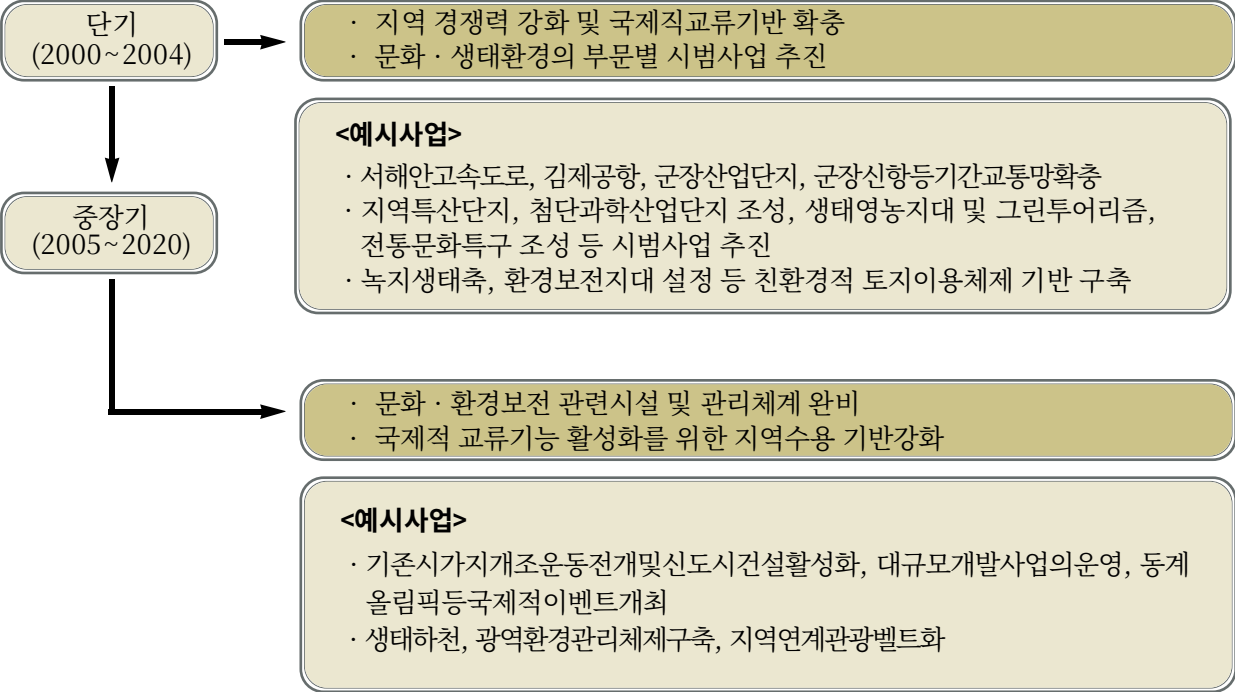
-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적 투자사업의 우선적 추진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추진 및 범도민 차원의 사업추진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발전에 핵심적인 중점추진사업의 선정 및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 자치단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 지역발전시책 및 사업의 전략적 추진

- 도 계획에서 제시한 시책 및 투자사업을 단계별로 전략화하여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인 지역발전목표를 달성토록 한다. 단계별 추진방향을 보면, 우선 단기적(2000~2005년)으로 지역경제기반 구축사업, 문화·관광·생태환경 등 부문별 시범사업 추진 및 제도 형성에 치중토록 하고, 중장기(2006~2020년)로는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 확보 및 환경 및 생태보전을 위한 부문별 시범사업의 확산 추진, 국제교류거점 기능의 강화에 치중토록 한다.



제2장 계획의 집행·관리방안



< 지역중점사업별 추진방안 >

□ 새만금종합개발사업

구 분	사업개요 및 추진방향
사업 개요	· 사업규모: 1억2천만평(40,100ha) - 농지조성 : 28,300ha - 담 수 호 : 11,800ha · 사업기간: 1991~2011년 · 주요사업 · 방조제 : 33km - 배수갑문 : 2식 - 담수호 - 내부농지 개발사업

□ 김제공항 건설

사업개요 및 추진방향
· 김제공항 건설 - 사업기간:2000~2004년(김제시 백산면 일원) · 군산공항의 시설보완

□ 군산자유무역지역 조성

사업개요 및 추진방향
· 군산자유무역지역 조성 (군장산업단지 및 임항지구 68만평) - 사업기간: 2000~2002년 - 개발방향: 정부의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에 따라 기계산업 집적지역으로 개발 ⇒ 정부의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에 따라 기계산업 집적지역으로 개발하고, 항만배후 지원 도시 및 차이나타운 건설 등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국제교역업무도시 육성 도시



제2장 계획의 집행·관리방안

□ 전주-군장광역권 개발사업

사업개요 및 추진방향
· 개발방향: 환황해경제권의 국제적 생산거점 형성 · 주요개발사업 - 산업단지 19.88km² (603만평, 공장용지 기준) · 향후 추진방향 - 군산-장항광역권 개발계획에 의한 군장신항, 군장산업단지 등 현안사업의 지속추진 도모 ⇒ 군장광역권 사업의 실질적인 집행을 토대로 하여 전주권을 포함한 종합적인 광역권으로 확대 개발

□ 생태하천가꾸기 조성사업

사업개요 및 추진방향
· 사업규모: 52km(군산시 만경대교~완주군 용암교) - 1단계(31km, 600만평), 2단계(21km, 210만평) · 개발방향: 생태하천가꾸기, 하천생태환경 복원 및 주변지구 조성, 생태프로그램, 수변휴식 및 여가공간 조성 - 정화 및 생태기능복원사업(갈대밭, 늪지대, 자연형하천 등) - 휴식 및 운동기능사업(자전거도로, 수목대 등) - 체험 및 교양기능사업(바이오파크, 탐조대 등) - 조경 및 편익기능사업(주차장, 광장, 생태숲 등) ⇒ 생태하천가꾸기 사업은 하천개수, 오염하천정화, 생태숲 및 생태서식처, 친수공간 조성 등 종합적인 차원에서 추진하고, 특히 자연생태복원에 치중
⇒ 생태하천 개발모형을 동진강, 섬진강, 금강 등으로 확대하여 전북지역을 생태거점지대화 유도

□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사업

사업개요 및 추진방향
· 지역별 전략산업의 선정 및 육성 - 전주·완주(영상·소프트웨어산업, 유전공학), 익산(보석 및 니트산업, 반도체), 군산(자동차, 메카트로닉스), 정읍(농가공, 생명산업), 김제(항공, 메카트로닉스), 남원(목공예, 특화작물 가공) · 육성방향 - 전문기술 산업단지 조성, 벤처산업 및 중소기업 육성지원, 관련연구소 및 기술지원체계 구축 ⇒ 지역거점의 산업특화와 집적(industrial cluster) 형성을 통하여 지역의 산업핵심 역량을 강화하고, 이들의 기능적·물리적 차원의 연계망 구축(군산~익산~전주간 첨단기술 산업벨트, 전주~정읍간 생명산업벨트, 전주~남원간 영상·문화 및 전통공예산업벨트)

□ 광역 테마관광벨트 조성

사업개요 및 추진방향
· 광역테마관광루트 조성의 기본방향 - 전북지역의 이미지를 상징화할 수 있는 대표적인 관광루트 및 벨트의 조성 추진과 관광루트별 고유의 기능부여사업 추진 - 전북도내 핵심적 관광유인거점을 특성별로 연계하여 관광객에 대한 다양한 체험·관광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의 새로운 관광이미지 제고 - 지역내 역사, 문화, 특수경관자원 등으로 특성화하여 특정목적의 관광수요(SIT)에 대응할 수 있도록 테마형 관광루트 개발하고, 지역간 협력 강화 · 4대 테마관광루트 및 3대 복합관광루트 설정 - 테마관광루트: 서해안해양체험관광루트, 산악체험관광루트, 생태체험관광루트, 향토역사·문화체험관광루트 - 복합관광루트: 해안-내륙경관연계 관광루트, 해안-내륙문화연계 관광루트, 문화-산악 체험연계 관광루트 ⇒ 관광자원간의 연계를 위해서는 인접 시군간의 관광시설, 관광정보제공, 공동마케팅 등 협력 및 제휴체제를 강화하고,
⇒ 인접 시·도지역과의 협력 및 제휴를 통하여 지역관광루트의 광역화 추진으로 국가사업화 유도
· 서해안해양관광벨트를 경기도 및 충남, 전남 등과 공조하여 남해안관광벨트에 버금가는 국가적 관광벨트 육성 추진



시·군별 발전방향

제3차 전라북도 종합발전계획



■ 전주시

전통과 미래가 함께하는 창조적 문화도시

- 환황해경제권 시대 국토중서부의 거점지역으로서 지역중심기능 강화
 - 군장신항, 호남고속철도, 공항, 서해안고속도로, 군산 함양고속도로 등 국제적 간선교통체계 구축
 - 전주 익산 군산간 광역전철 등 광역적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 전북지역내 행정 및 중추관리도시로서 기능강화와 광역도시권 조성
-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하기 위하여 첨단·정보산업기반 확충
 - 멀티미디어산업의 지역거점 육성으로 영상산업 및 지식산업수도 기반 구축
 -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새로운 지식산업기반 확충 및 창업, 개발, 업무지원서비스 산업 육성
- 세계적으로 개성있고 고유 특성을 지닌 전통적인 문화예술기반 육성
 - 문화·전통적 예향으로서의 위상 강화를 위하여 전통문화특구, 향토역사박물관 조성
 - 문화도시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문화거리, 보행자전용공간, 국제영화제, 문화시민운동 및 축제 개최 등
- 역사문화와 환경적 쾌적성을 살린 녹색생태도시 건설
 - 지역주민에게 환경적 쾌적성을 제공하기 위한 자전거시범도로, 보행시설, 저밀도 주거단지, 친수공간 등 친환경적 여건조성
 - 노면전차 등 친환경적인 도시교통체계 도입



시·군별 발전방향

■ 군산시

국제적 생산 및 교역도시

- 환황해경제권 중추도시로서 국제적인 생산·교역전진기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접근성 개선
 - 환황해경제권의 거점으로서 입지적 특성을 살린 국제자유 무역도시 구축을 위한 유치기반 조성
 - 공항, 항만, 물류기지 등 국제교류기반 확충과 전국적 연계교통망, 정보인프라 구축
 - 편리하고 친환경적인 도시교통체계 확립
- 해양자원과 주변자원을 활용한 국제적인 해양관광도시 기반구축
 - 해수욕장, 방조제, 금강호 등 해양자원과 주변자원을 활용한 국제적인 해양관광도시 기반구축
 - 대규모 산업단지의 위락과 휴양기능 담당할 수 있도록 라스베이가스형 국제위락단지 조성 및 산업관광 활성화
 - 역사문화 유적자원의 정비를 통하여 지역특성을 살린 복합적 관광루트개발
- 배후생산지원도시로서 균형적 도시공간 구조 및 친환경적 생태도시 창출
 - 국제자유무역도시 조성에 대비하여 산업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지원도시 기능 조성
 - 충분한 녹지공간, 인간중심의 도시편의시설 확보로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룬 청정한 도시건설
 - 기존 시가지의 정비, 만경강생태하천, 수변공간 조성 등을 통해 친환경적 생태도시 창출
 -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증대 기반확충

■ 익산시

물류와 특화산업 기반을 갖춘 역사문화도시

- 교통절점지로서의 기능을 강화하여 물류 및 유통중심도시 기능 강화
 - 전주 익산 군산 연담도시권내 배후공단의 화물과 농산물의 집·배송기능을 담당토록 물류유통단지 등 유통도시 기반확충
 - 군장국가산업단지, 전주3산업단지, 전주과학산업단지 등과 연계한 산업단지 개발을 통한 산업생산 기능강화
- 보석·석재가공 및 니트산업으로 특화된 도시 육성을 위한 기반구축
 - 지역특화산업의 고도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조성
 - 귀금속, 보석 및 석재 관련산업과 보석박물관, 보석전문훈련기관 등의 유기적인 연계와 섬유패션, 니트산업을 활성화시켜 보석 및 패션도시로 특화
- 역사자원과 종교자원의 세계화를 위한 지역이미지 구축
 - 마한·백제문화자원의 복원 및 보전을 통한 성지순례 활성화 등 마한·백제시대의 문화관광도시 부각
 - 원불교, 천주교, 미륵신앙 등 세계적 종교도시로써의 면모를 강화하여 지역의 종교적 색채강화
- 농촌과 도시가 공존하는 지역적 특성을 살리기 위하여 도시개발의 친환경적 기법 등 자연생태계 순환기능을 지닌 생태도시 육성
 - 도시와 농촌경관의 조화를 살린 전원적인 도시개발, 만경강 생태하천가꾸기 등 친환경적 개발을 통한 지역주민 위락공간 제공



시·군별 발전방향

■ 정읍시

산악경관자원과 생태영농기반을 갖춘 관광도시

- 생물산업 등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한 지역경제 활성화기반 구축
 - 첨단과학신도시를 건설하여 전국규모의 연구·실험시설 및 생산시설을 유치하여 특정분야의 생명산업 거점으로 육성
 - 지식기반 신산업지역 벨트화의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기존 산업단지내 메카트로닉스산업 유치·육성
 - 식음료연구소 및 식음료단지 조성을 통하여 지역특화산업 육성
 - 지식산업단지 조성에 부응하여 우수한 인재육성을 위하여 신산업단지와 연계한 생명공학, 유전공학 등 대학설치 모색
- 동학혁명 등 독특한 전통역사 문화자원의 기상을 살린 전통문화와 내장산 등 경관자원을 갖춘 국제적 관광거점기반 구축
 - 정읍사 가무악극, 동학창무극을 전통문화 관광이벤트 추진 및 세계적인 아리아 육성
 - 내장산, 회문산권 문화관광지의 사계절화를 위한 종합적인 관광지 및 기반 구축, 동학혁명의 발상지로서 지역이미지 홍보
- 친환경적인 그린시티화
 - 친환경적 농·축산 육성, 녹색생태 도심공원 조성, 깨끗한 생활환경 기반조성, 안전한 친환경 선진교통체계 구축
 -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산촌마을 개발사업의 추진
- 지역내 고창군, 부안군, 순창군 등 서남부 지역과의 광역행정체제 구축
 - 전북지역 서남부의 해안과 내륙지역을 연계하는 거점도시

■ 남원시

전통문화예술 관광도시 및 서남내륙권 중추거점도시

- 서남내륙권의 거점도시 육성기반 구축
 - 지역간 연계교통망 구축 및 유통단지 조성을 통하여 물류거점도시로 육성
 - 편리한 교통여건, 수려한 경관을 배경으로 문화·예술·관광·휴양산업의 거점기지로 서남내륙권의 거점기능 수행
 - 지식기반산업, 관광산업 등 성장주도 산업단지의 중점 유치로 국토 서남부 내륙권 및 지리산주변 지방소도시 산업발전의 거점기지화
 - 전통목공예, 옷산업 등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연관산업단지 조성과 농축산업의 고부가가치화
- 독특한 역사·문화관광 자원을 기반으로 문화관광산업의 거점도시로 육성
 - 국악의 성지 조성을 위한 국악대학 및 인재양성, 전통문화탐방 및 문화 체험장화
 - 춘향테마파크, 도예문화 부활, 흥부민속촌 건립 등 세계적으로 특성있는 전통문화자원 개발
 - 춘향제, 흥부제 등 지역 향토문화축제의 육성
- 지리산 등 생태휴양공간을 중심으로 한 생태도시
 - 천연자원이 보존된 전국 최고의 생태휴양공간, 환경친화적인 녹색체험관광지화
 - 천혜의 비경인 지리산과 인근 문화관광 자원을 연계하여 다양한 유형의 휴양시설을 갖춘 사계절 종합휴양관광지 조성
 - 국립자연사 박물관을 지리산에 건립토록 유치하여 생태의 보고, 교육의 산실, 생태문화의 관광거점기지 구축
 - 자연친화형 친수공간 조성으로 수생동식물의 생태계 보호 및 지역주민 생활휴식공간 확보



시·군별 발전방향

■ 김제시

대규모 영농기반을 갖춘 생산지원도시

- 새만금간척사업, 서해안고속도로 건설, 김제공항 및 군장광역권 배후거점도시로서 물류중심기능 강화
 - 고속도로, 공항 및 철도연계 물류센터, 농축수산물 유통단지 등 개발
- 환경보전형 농업육성 등 쌀의 브랜드화 추진
 - 유기농산물 생산확대 및 그린투어리즘(green tourism)과 연계한 환경보전형 농업육성
 - 체류형 관광농업(그린투어리즘)의 육성 및 쌀의 차별화와 고부가가치화(브랜드화) 추진
- 지역특성을 살린 경관정비를 통하여 환경시범도시로 조성
 - 도시내 녹지공간 확충, 계획적 택지개발지구의 저밀도 전원주거단지 조성유도, 자전거시범도시 조성
- 새만금지구와 연계한 해양관광단지 조성 등 도시배후 전원 및 관광기능 수행
 - 전원실버도시 개발, 건강휴양온천 특화, 실버산업단지 유치, 노인종합복지센터 조성 등 실버도시 구축을 위한 기반구축
 - 김제평야를 활용한 관광상품 및 축제, 새만금지구와 연계한 해양관광단지 조성 등 독자적인 관광자원 개발

■ 완주군

첨단산업과 자연경관이 어우러진 생산적 배후전원지역

- 대도시 근교의 배후전원 주거 및 휴양공간으로 육성
 - 친환경적 도시개발 및 경관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대안적 전원주거공간 제공
 - 호반휴양지, 계곡 등 위락 및 휴양기능 강화
- 첨단산업 중심의 유치 육성으로 독자적인 생산기능 보유
 - 자동차, 과학산업단지의 활성화로 지역의 독자적인 생산기능 보유
 - 전주의 영상산업단지와 연계한 첨단산업단지 조성
- 근교 및 생태영농기법을 통한 농산물의 대도시 직판매
 - 농산물유통단지 등의 조성을 통해 대도시 소비시장에의 영농출하물 직판매, 지역적 입지특성을 살려 경제 활성화 도모
 - 화훼생산, 유기농기법에 의한 청정채소 생산 등 영농단지 조성

■ 진안군

청정환경을 갖춘 생태영농 및 휴양·관광지역

- 농특산물의 고부가가치화와 브랜드화로 안정적인 지역소득기반 확충
 - 청정지역의 자연적 여건과 특성을 이용한 차별화된 청정농특산물 생산으로 지역이미지 제고와 인삼 등 특작목 재배육성으로 농업소득의 고부가가치화
 - 청정환경과 무공해 농업, 연구개발기능이 결합한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
 - 농축산물 품질의 고급화와 브랜드화 추진으로 가공·유통·수출산업화
 - 건강제품의 연구개발, 식품가공 등 건강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하여 식품가공 산업단지, 첨단생약과학단지, 전문연구소 등 조성



시·군별 발전방향

- 산림휴양시설, 산나물생태공원, 임산물 판매장 확충 등 산지활용 농외소득 기반조성

○ 지역고유의 문화·관광자원의 상품화를 통한 지역이미지 제고와 지역주민소득 증대

- 마이산 기센타, 건강제품, 명상제품, 심신수련제품 등으로 건강휴양지역으로 육성
- 기맞이, 기테마코스 등 이벤트사업 추진 등 역사와 지역문화를 관광마케팅화 하여 체험형 관광지 조성
- 이산묘, 금척무 등 조선의 역사성을 활용한 조선역사문화촌 건설

○ 지역 청정경관자원을 연계 개발하여 거점휴양관광지 조성기반 확충

- 주변 대도시권과 덕유산지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지·덕 관광권 개발과 연계한 관광산업단지 조성, 완주~진안~장수~무주~남원 연결 동부내륙 관광도로
- 용담댐, 성수온천, 운장산, 마이산 개발 등 지역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산악수변형 휴양관광지 조성
- 청정경관자원과 성수온천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전원도시형 실버타운 및 문화생태형 관광거점 조성

■ 무주군

청정경관과 리조트시설을 활용한 레포츠·생태휴양도시

○ 환경시대의 도래에 부응하여 청정환경지역으로서의 경쟁력 강화

- 반딧불이 자연학교, 곤충박물관, 반딧불축제의 관광상품화를 통한 세계적인 생태문화의 메카로 조성

- 덕유산국립공원과 적상산을 축으로 하는 생태관광벨트의 중심지역 육성
- 청정경관 및 지역적 특성을 살려 건강휴양촌 및 전원주택단지 조성

○ 종합적인 휴양레포츠 및 체험관광 메카로 육성

- 동계올림픽의 무주 유치 실현으로 동계올림픽의 메카 부상
- 동계올림픽에 대비한 입체적인 교통망 구축을 위하여 소규모 경비행장 및 동서횡단철도 건설
- 덕유산 문화·관광의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교통여건 개선 등 기반환경 조성
- 천연자연림을 활용한 종합적인 체류형 덕유산 문화관광권 개발
- 무주리조트를 중심으로 스키, 골프, MTB, 패러글라이딩, 래프팅 등 사계절 종합레저 및 스포츠 휴양지역으로 육성
- 적상산성 복원, 나제역사문화단지, 신라촌, 백제촌과 유물·유적전시관 조성 등 역사문화 체험의 장 마련
- 주변대도시 지역주민의 자연친화적 전원생활욕구 충족을 위한 가족휴양지역 조성

○ 청정 및 환경농업 기반확충

- 도덕과 생명농업의 생산기반 조성 및 환경농업 지역이미지 구축
- 사과연구소 조성을 통해 지역특성을 살려 고랭지 고품질 사과명산지 이미지 구축
- 지구환경시대를 선도할 국내 유일의 환경대학교를 설립하여 국제적인 환경지역 조성



시·군별 발전방향

■ 장수군

독특한 경관·문화자원을 활용한 청정생산지역

- 청정산림도시 모델로 육성하기 위한 지역기반 구축
 - 장안산 산림형 리조트, 덕유산 등의 적극적인 개발로 산림휴양 및 전통적 생활문화공간 조성
 - 산촌지역의 산림, 휴양, 문화자원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산촌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그린투어리즘(green tourism)의 거점지역 조성
- 개성있는 지역문화 및 관광자원 창출
 - 논개 등 충절의 지역문화 확립을 위한 문화재 발굴·복원 등 지역역사 문화기반 구축
 - 전통행사 및 이벤트 등 전통적인 지역문화자원의 관광자원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국제승마장 등 특수한 지역관광자원의 육성을 통한 지역이미지 및 경제기반 구축
- 지역특화산업 기반의 강화
 - 첨단화된 지역특화산업 가공, 장수사과단지, 청정한우 브랜드화 사업추진을 통한 지역산품의 고품격화
 - 지역특성을 살린 산지의 효율적 이용으로 고부가가치화 유도
 - 청정한 지역특산품의 신속한 유통을 위한 농산품 물류단지 조성

■ 임실군

대도시 주변의 전원주거지역

- 친환경 농업육성 및 영농전문화 추진
 - 임실고추 등 지역상징성이 있는 특화작물의 집중육성 지원
 - 우유, 치즈 등 대도시 소비시장을 겨냥한 가공산업 육성
- 특성화된 지역관광산업 및 지역문화 육성
 - 오수의 개를 주제로 하여 세계적인 관광기능 수행(경전장, 의견공원 등)
- 대도시 근교의 문화·여가·위락공간 제공
 - 사선대 조각공원, 성미산성 등 문화예술공간과 유희 위락시설의 종합 수변관광단지 조성
 - 옥정호 호반 자연경관과 회문산 역사유적을 연계한 관광벨트 조성
- 첨단산업 중심의 산업단지 조성 및 도시근교 배후 생산기능 강화
 - 친환경 및 도농복합형 도시개발
 - 전원주택단지, 건강휴양촌 조성 등

■ 순창군

청정자연 및 전통자원을 갖춘 여유로운 전원지역

- 산지자원을 활용한 소득개발
 - 정주기반, 생활환경 조성, 주택개량, 산림박물관, 특산품판매장 설치 등 산촌마을을 중심으로 한 개발
 - 조림사업으로 경제수림 조성 및 질 좋은 임목생산 및 전국 최대규모의 삼림욕장 조성



시·군별 발전방향

- 그린투어리즘(green tourism)의 활성화와 도시-농촌간 교류확대
 - 주말농장, 고추장담그기 등 가족과 현장체험을 즐길 수 있는 전원농촌개발
 - 북흥 상송온천, 산촌마을 조성, 레포츠공원, 회문산 종합개발 등 지역특성을 살린 전문관광단지의 개발
 - 수려한 자연공간을 활용한 도시민의 휴식공간 개발
 - 환경성을 고려한 생태관광지 조성
 - 대도시 및 주변지역과의 연계도로 확충
- 지역특화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지역마케팅 추진
 - 장류가공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지역특화산업 기반 강화
 - 청정자연 보전을 위한 푸른숲 조성, 푸른도시가로 등 독특한 지역경관 조성
- 섬진강 상류유역 개발
 - 섬진강 체육공원 및 야외공연장 건립, 향가유원지 개발
 - 벤처농업단지 조성
 - 기반시설정비, 배·복숭아단지 조성, 시설채소, 원예단지 조성, 야생화 및 약용식물 재배단지 조성

■ 고창군

세계문화유산과 특화농산물을 보유한 청정 전원도시

- 환경친화적 농업 및 산업기반 육성으로 산업구조 고도화
 - 지역특화 품목의 브랜드화를 통한 수출농업의 선도지역으로 육성
 - 농축수산 가공산업의 육성 및 고부가가치화
- 간선교통체계의 획기적 정비로 미래지향적 교통망 체계 구축

- 관광자원의 효과적인 개발과 이용 극대화를 위한 남북 및 동서(해안 내륙 지역) 교통망 체계의 구축

○ 지역문화자원의 세계적 관광자원화 및 지역문화 보전

- 고인돌군의 세계적인 관광지화 조성
- 고창읍성, 판소리박물관, 문화관광촌 조성 등 고창의 전통문화자원 이미지화
- 선운산도립공원, 석정온천, 해양자원 등 다양한 관광자원의 연계

■ 부안군

해양경관자원과 청정농수산업 기반을 갖춘 해양관광휴양지역

- 변산해양관광권의 배후관광거점 도시 및 새만금의 배후도시기능 수행
 - 새만금지구 개발과 연계한 배후도시 기반 구축
 - 새만금 배후도시로서 사회간접기반시설의 확충
 - 변산반도를 연계하여 해양경관자원을 활용한 종합휴양단지 조성으로 관광휴양지화
- 청정 및 환경농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수출산업화
 - 수산물가공시설 개발 및 전통젓갈 등 지역특산품의 관광상품화
 - 청정저공해 농산물 재배단지 및 죽염을 이용한 특산단지 조성으로 지역소득 증대 도모



〈제4차 국토종합계획과 제3차 전라북도 종합발전계획 비교〉

구 분	제4차 국토종합계획 (2000 2020)	제3차 전라북도 종합계획 (2000 2020)
기조 목표	· 21세기 통합국토의 실현 - 더불어 잘사는 균형국토 - 자연과 어우러진 녹색국토 - 지구촌으로 열린 개방국토 - 민족이 화합하는 통일국토	·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하는 국가거점지역 육성 - 첨단기술 · 생태 · 문화를 갖춘 활력있는 전북 실현
추진 전략	· 개방형 통합국토축 형성 · 지역별 경쟁력 고도화 · 건강하고 쾌적한 국토환경 조성 · 고속교통 및 정보망 구축 · 남북한 교류협력기반 구축	· 지역의 통합성 증진을 위한 공간개발 · 개성있는 친환경적 지역정주기반 형성 ·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지식기반산업 육성
지역개발 부문기조 (지역별 경쟁력의 고도화)	· 지역특성을 살린 개성있는 발전추진 · 지역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전략적 산업입지 기반조성 · 문화 · 관광기반의 체계적 확충 · 지역중심의 개발체제 강화와 지역간 협력촉진	· 세계와 지역을 통합하는 교통 · 정보 인프라 확충 · 지역발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환경보전 및 자원개발 · 문화적 쾌적성을 갖춘 지역문화 · 관광개발
전북의 발전방향	· 환황해권 생산 · 물류 전진기지 - 환황해권 생산 · 물류중심지 기반확충 - 경쟁력있는 신산업 육성과 매력있는 입지환경 조성 - 유기적인 도시 및 지역체계 구축과 지역균형발전 추구 - 통합적 문화 · 관광권 구축과 세계적 지역문화 창출 -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구축	· 삶의 질 확보를 위한 고품격 생활 · 복지환경 창출 · 지식기반행정체제 구축과 지역간 협력강화
주요지표 전망	· 전북인구: 1,870천명 - 연평균증가율(1995 2020): △0.07% - 전국대비 비중: 3.57%	· 전북인구: 2,113천명 - 연평균증가율(1995 20): 0.41% - 전국대비 비중: 4.04%전망
주요시책 및 개발사업	· 전주영상산업수도화, 국제교역 촉진, 고속간선교통망 및 국제직교류 기반구축, 지역문화축제 및 이벤트개발, 전주-군장광역권 개발사업 추진 등	· 군장신항, 군장산업단지, 김제공항, 군산자유무역지역, 전통문화특구, 세계소리축제, 간선 교통망 구축 등

제3차 전라북도 종합발전계획